

2015년 5월 12일

투자전략 Daily

- 글로벌전략

1940년대 이자율의 흐름

- 이머징마켓 동향

해외자금, 정책 등으로 주요 이머징 혼조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KT&G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 기업분석

영원무역, DGB금융지주,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삼성증권,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원익IPS, CJ CGV, LF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글 로 벌 전 략 | 박중제 ☎ 3276-656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 권 분 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해 외 채 권 | 진은정 ☎ 3276-6231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유가증권	구분		4/30(목)	5/4(월)	5/6(수)	5/7(목)	5/8(금)	5/11(월)
	종합주가지수		2,127.17	2,132.23	2,104.58	2,091.00	2,085.52	2,097.38
	등락폭		-15.46	5.06	-27.65	-13.58	-5.48	11.86
	등락종목	상승(상한)	244(4)	334(6)	187(9)	364(7)	532(9)	564(10)
		하락(하한)	561(1)	488(3)	633(1)	437(3)	279(2)	233(2)
	ADR		101.69	96.14	89.52	88.64	90.39	93.04
	이격도	10 일	99.00	99.29	98.19	97.80	97.81	98.72
		20 일	100.57	100.60	99.16	98.42	98.10	98.57
	투자심리		30	30	20	20	20	20
	거래량	(백만 주)	509	356	428	423	310	327
거래대금	(십억 원)	6,171	4,729	5,674	5,464	4,761	4,963	
코스닥	코스닥지수		689.01	677.90	665.94	673.08	681.69	692.29
	등락폭		-6.68	-11.11	-11.96	7.14	8.61	10.60
	등락종목	상승(상한)	244(6)	334(8)	187(8)	364(9)	532(12)	668(14)
		하락(하한)	561(9)	488(14)	633(4)	437(7)	279(1)	317(2)
	ADR		96.46	88.41	83.15	84.25	88.50	89.47
	이격도	10 일	98.49	97.30	96.15	97.77	99.33	100.88
		20 일	100.02	98.27	96.51	97.50	98.65	100.07
	투자심리		30	30	20	20	20	20
	거래량	(백만 주)	585	441	486	474	439	424
	거래대금	(십억 원)	3,801	3,038	3,274	3,424	3,145	2,95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유가증권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타		
	매수	2,857.9	1,169.9	901.9	198.1	141.5	197.0	59.6	35.6	269.932	59.8
	매도	2,774.7	1,216.0	958.9	218.0	167.5	253.5	58.8	15.5	245.6	39.8
	순매수	83.2	-46.0	-57.1	-19.9	-26.0	-56.5	0.8	20.1	24.4	20.0
	5월 누계	549.6	86.1	-669.6	-55.2	-129.5	-404.1	-214.8	-38.8	172.9	34.0
	15년 누계	-1,603.6	7,851.3	-7,236.1	-2,946.7	-517.1	-5,950.3	-596.1	35.9	2,738.0	988.4
코스닥	매수	2,567.0	191.0	206.2	49.5	21.4	53.2	29.1	8.2	44.8	21.0
	매도	2,616.4	178.3	152.3	44.3	15.8	33.2	6.2	7.9	44.9	38.4
	순매수	-49.3	12.7	53.9	5.3	5.6	20.0	22.9	0.3	-0.1	-17.3
	5월 누계	7.1	0.8	26.6	-1.6	-3.4	17.4	9.0	-28.1	33.2	-34.5
	15년 누계	1,464.8	-520.4	-264.7	-146.4	89.8	-156.8	-124.2	-32.0	104.9	-679.7

1940년대 이자율의 흐름

2015년 Target KOSPI	2,300pt
12MF PER	9.88배
12MF PBR	0.96배
Yield Gap	8.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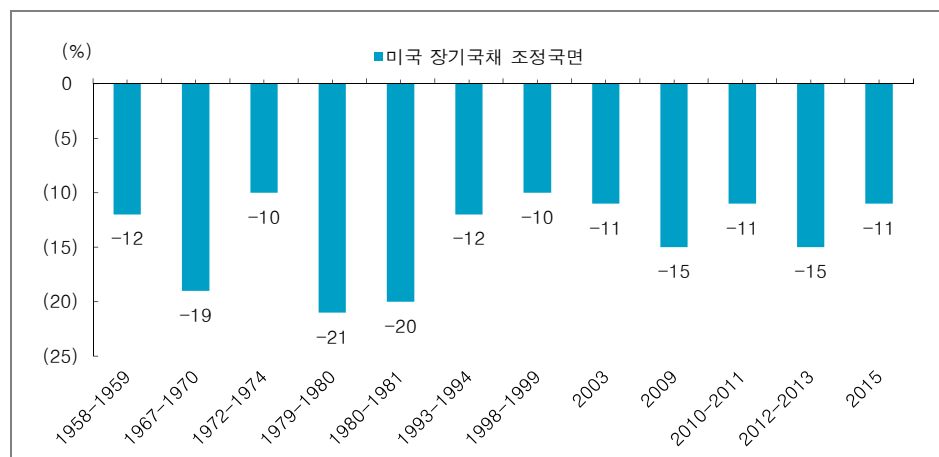
- ▶ 금리 상승의 배경: 연초 채권 과매수 국면에 따른 조정, 부작용 발생에 의한 필요성
- ▶ 글로벌 금리 상승폭 제한적: 1930-40년대 15년 동안 미국 단기 채권 금리 1% 이하
- ▶ 달러 인덱스 97pt까지 반등 예상, WTI는 \$60/bbl 이상에서는 short

■ 금리가 왜 올랐나?

유명 금융 블로그인 ‘A Wealth of Common Sense’는 1926년 이후 미국 장기 국채 시장의 조정(Correction) 사례에 대해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국채 총수익률(Total return)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는 총 12차례였다. 흥미로운 점은 2015년도 포함이 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글로벌 채권 시장 조정 국면의 강도가 역사적으로도 매우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채권 시장의 조정 강도와 비교할 때 이번에 나타난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글로벌 주식 시장의 조정 요인 중 하나로 금리 상승이 꼽히고 있지만 2013년도 ‘Taper tantrum’과 비교하면 그 강도는 훨씬 약하다. 이는 모두가 금리 상승을 예상했던 2013년과는 달리 지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2015년 채권 시장의 조정은 무엇으로부터 초래된 것이었을까?

[그림 1] 1926년 이후 미국 장기국채 토탈리턴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자료: A Wealth of Common Sense, 한국투자증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올해 초에 글로벌 금리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장기 국채 추세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즉 하락추세를 유지하다가 주기적으로 채권 과매수 국면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조정이 이어지는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앞서 채권 시장이 10% 이상 하락했던 사례에 포함된 2009년, 2012-2013년, 2015년 모두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그림 2] 미국채 10년물 - 과매수 이후 반등이 이어지는 패턴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채권 시장은 초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채권 과매수 국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권은 주식이나 commodity와는 달리 평균 회귀 성향이 강하다. 국가가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는 기업보다는 훨씬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 과매수 국면 이후에는 반드시 강한 조정이 나타났다. 우리는 2015년 채권 금리 상승의 본질도 올해 초 채권 시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독일은 이번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는데 Bund(독일국채)는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해 채권 중에서도 가장 과매수된 자산이었다. 즉 독일국채 금리가 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유로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었다.

저마다 상황이 다른 다수의 경제가 존재하는데 중앙은행은 하나다. 그리고 이 중앙은행은 디플레이 위험이 높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친다. 결국 Bund의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유로존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반대로 GREXIT가 빈번히 회자되면서 하나의 유로존이라는 믿음이 약해지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Bund 금리도 오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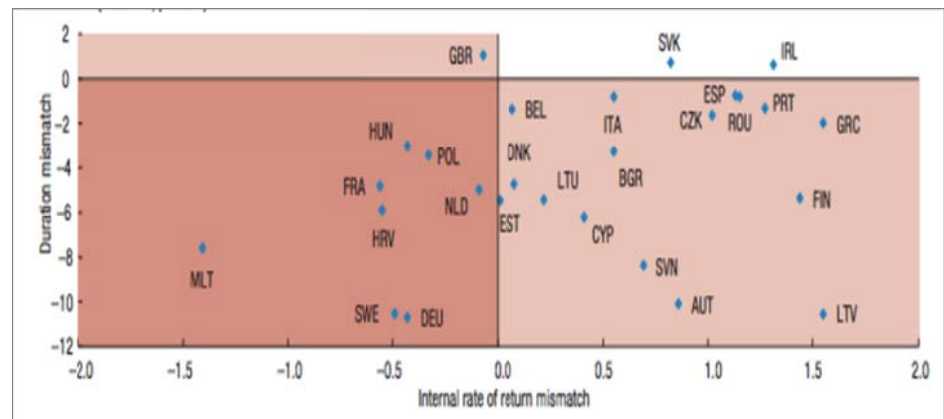
결국 독일국채 금리는 유로존에 대한 믿음을 상징한다고 본다. 이는 GREXIT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유로존에 대한 믿음을 실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어렵다고 본다. 만약 독일채권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이는 유로존과 ECB의 실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금리의 상승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물론 금리 상승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자율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기’가 ‘결과’를 만든다. 필요성이 클수록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IMF의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는 저금리로 인해 유럽 보험회사들이 큰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보장수익률과 듀레이션 관점에서 특히 독일과 스웨덴의 보험회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유럽 보험회사들의 투자 자산이 4.4tr 이고 채권 및 스왑거래를 통해 은행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자칫 보험회사의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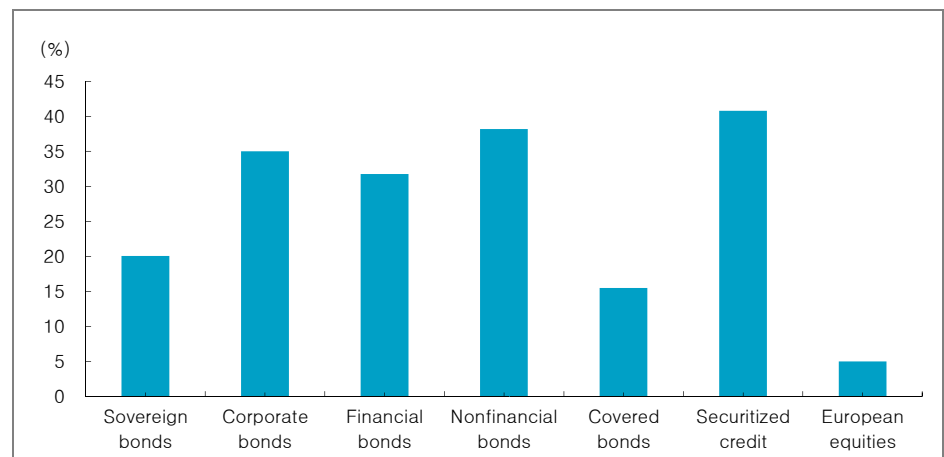
유럽의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유럽 보험회사들은 큰 위기를 넘긴 셈이다. 또한 유럽 보험산업의 위기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는 전체 시장 입장에서조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림 3] 유럽 보험회사 듀레이션 및 수익률 미스매치 현황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유럽 보험회사 보유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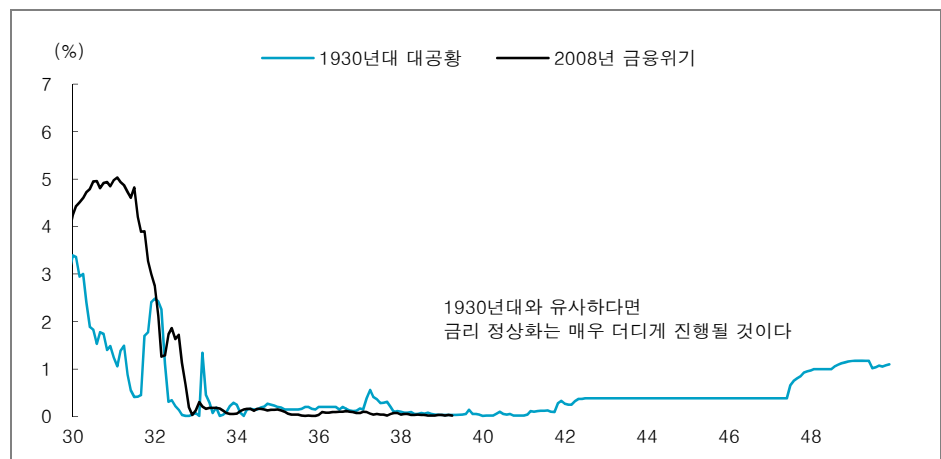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 글로벌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

그렇다면 향후 글로벌 금리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 글로벌 경제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가 크게 오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1932-1947년까지 미국 단기 금리가 1% 이하에서 장기간 머물러 있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0%에 가까운 금리는 비정상적이고 적어도 3-5%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자율 0%가 정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 비정상적 상황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1930-1940년대의 경우 15년 동안 미국 단기 채권 금리가 1% 이하에서 머물렀는데, 만약 이번에도 당시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가정해보면 2023년까지 단기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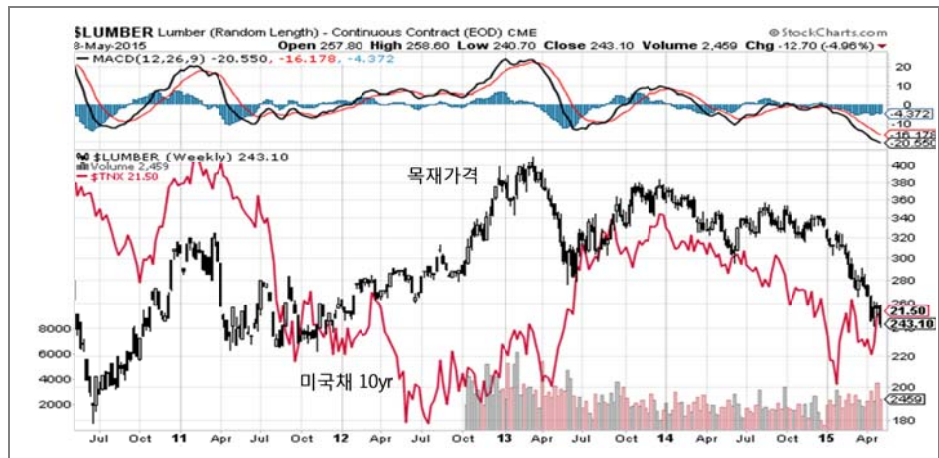
[그림 5] 미국채 3개월물 - 1930년대와 2008년 금융위기 비교



자료: 한국투자증권

물론 당시와 꼭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직 미국 경제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르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최근 유가 등 변동성이 큰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핵심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 특히 서비스 항목 등에서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미국 주택 시장의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목재가격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재가격이 오르지 않고 미국 금리가 의미 있게 상승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6] 목재가격과 미국채 10년물 비교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정리하자면 우리는 글로벌 금리가 현 수준에서 크게 오르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금리는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로화 상승세가 일단락되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국 총선 결과 보수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유로화는 급격히 약세로 전환됐다. 추세가 깨진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바로 강세 추세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달러 인덱스 97pt까지 반등 예상). WTI는 \$60/bbl 이상에서는 short이다.

[그림 7] 달러 인덱스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Global Asset Monitoring

〈표 1〉 주식 / 원자재 / REIT 기간별 수익률 순위

(단위: %)

	5D	1M	3M	YTD	1Y	
1	설탕	4.0 천연가스	15.5 중국 주식	34.8 RBOB 가솔린	38.9 중국 주식	111.6
2	천연가스	2.8 WTI	14.8 RBOB 가솔린	29.1 러시아 주식	34.0 일본 주식	38.0
3	러시아 주식	2.7 니켈	13.9 러시아 주식	27.3 중국 주식	31.6 홍콩 주식	26.8
4	라틴아메리카 주식	2.5 난방유	10.7 WTI	21.4 이탈리아 주식	22.6 독일 주식	22.2
5	니켈	2.5 RBOB 가솔린	10.3 브라질 주식	18.5 독일 주식	19.4 인도 주식	18.5
6	독일 주식	2.2 그리스 주식	8.1 구리	14.6 프랑스 주식	19.1 유럽 주식	14.6
7	은	2.1 구리	6.5 홍콩 주식	14.0 홍콩 주식	17.4 프랑스 주식	13.7
8	그리스 주식	2.0 러시아 주식	6.0 이탈리아 주식	13.4 유럽 주식	16.0 일본 제외 아시아 주	12.8
9	브라질 주식	1.6 LME금속지수	5.8 일본 주식	11.0 브라질 주식	14.3 미국 주식	12.6
10	코코아	1.6 원자재 전체	5.5 스페인 주식	10.2 일본 주식	12.3 남아공 주식	9.1
11	영국 주식	1.2 중국 주식	5.5 라틴아메리카 주식	9.2 WTI	11.3 이탈리아 주식	9.0
12	멕시코 주식	1.2 브라질 주식	5.4 독일 주식	8.9 스페인 주식	11.1 스페인 주식	8.9
13	이탈리아 주식	1.2 알루미늄	5.1 프랑스 주식	8.8 한국 주식	10.0 대만 주식	8.8
14	유럽 주식	0.9 라틴아메리카 주식	5.0 LME금속지수	8.7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9.9 멕시코 주식	8.4
15	밀	0.9 코코아	4.1 한국 주식	8.3 면	9.7 알루미늄	7.8
16	프랑스 주식	0.9 대두	3.7 유럽 주식	8.2 EMEA 주식	8.7 한국 주식	7.7
17	WTI	0.6 설탕	3.5 난방유	7.8 남아공 주식	8.5 브라질 주식	7.6
18	원자재 전체	0.5 면	1.7 신흥국 주식	7.7 신흥국 주식	8.2 전세계 REIT	7.3
19	대두	0.4 홍콩 주식	1.6 멕시코 주식	7.6 영국 주식	7.3 스위스 주식	6.8
20	미국 주식	0.4 남아공 주식	1.2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7.4 난방유	5.9 선진국 주식	6.6
21	스페인 주식	0.3 EMEA 주식	1.2 EMEA 주식	7.0 은	5.6 전세계 주식	6.2
22	EMEA 주식	0.3 한국 주식	0.9 면	6.6 전세계 주식	5.3 캐나다 주식	4.4
23	선진국 주식	0.2 선진국 주식	0.9 스위스 주식	6.0 선진국 주식	5.0 호주 주식	3.4
24	스위스 주식	0.2 전세계 주식	0.8 그리스 주식	5.8 멕시코 주식	4.6 영국 주식	3.4
25	금	0.1 미국 주식	0.7 코코아	5.3 호주 주식	4.4 아시아 REIT	2.8
26	전세계 주식	0.1 대만 주식	0.6 전세계 주식	4.6 대만 주식	3.9 신흥국 주식	2.8
27	전세계 REIT	0.0 멕시코 주식	0.5 선진국 주식	4.2 캐나다 주식	3.7 코코아	1.4
28	LME금속지수	-0.4 신흥국 주식	0.0 남아공 주식	4.0 구리	3.0 LME금속지수	-5.1
29	커피	-0.4 은	-0.1 천연가스	3.7 미국 주식	2.8 구리	-6.1
30	구리	-0.4 영국 주식	-0.6 영국 주식	3.4 알루미늄	1.6 금	-7.8
31	옥수수	-0.5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1.0 원자재 전체	3.2 그리스 주식	1.5 EMEA 주식	-9.4
32	아시아 REIT	-0.7 금	-1.4 미국 주식	2.3 스위스 주식	1.2 은	-13.9
33	인도 주식	-0.9 캐나다 주식	-1.4 대만 주식	2.2 전세계 REIT	0.9 러시아 주식	-14.1
34	한국 주식	-1.0 일본 주식	-1.5 대두	0.9 라틴아메리카 주식	0.6 라틴아메리카 주식	-17.6
35	남아공 주식	-1.0 커피	-2.1 아시아 REIT	0.5 LME금속지수	0.6 설탕	-22.2
36	캐나다 주식	-1.1 전세계 REIT	-2.1 알루미늄	0.3 천연가스	0.4 원자재 전체	-24.8
37	면	-1.2 이탈리아 주식	-2.4 캐나다 주식	0.1 코코아	0.4 니켈	-26.5
38	난방유	-1.2 아시아 REIT	-2.4 은	-1.5 금	0.3 면	-28.4
39	신흥국 주식	-1.3 스페인 주식	-2.8 호주 주식	-2.1 원자재 전체	-0.3 옥수수	-29.3
40	홍콩 주식	-1.5 프랑스 주식	-2.9 금	-2.6 인도 주식	-0.9 그리스 주식	-29.6
41	대만 주식	-1.7 스위스 주식	-4.0 전세계 REIT	-2.8 아시아 REIT	-1.1 커피	-31.1
42	RBOB 가솔린	-2.0 유럽 주식	-4.4 인도 주식	-4.5 대두	-3.2 RBOB 가솔린	-31.2
43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2.2 옥수수	-5.3 니켈	-6.1 니켈	-5.5 난방유	-32.7
44	일본 주식	-2.3 독일 주식	-5.4 옥수수	-7.5 설탕	-7.6 밀	-33.7
45	알루미늄	-2.7 호주 주식	-5.4 설탕	-7.5 옥수수	-10.1 대두	-34.2
46	호주 주식	-3.1 인도 주식	-5.6 밀	-9.9 밀	-19.7 천연가스	-36.0
47	중국 주식	-5.0 밀	-10.1 커피	-20.3 커피	-20.2 WTI	-40.7

주: 2015.5.10 종가 기준. 국가별 대표 주가지수 이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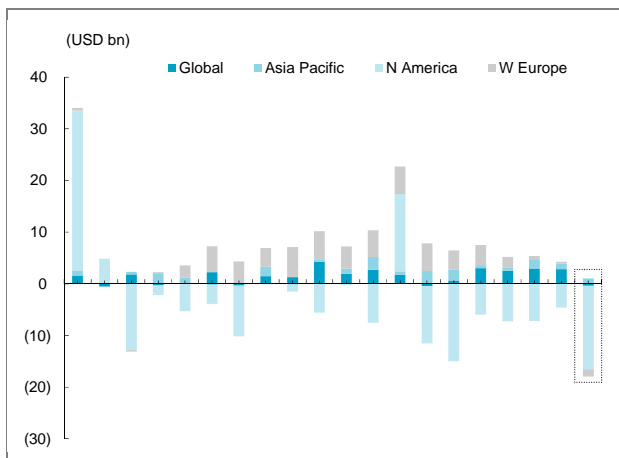
〈표 2〉 Global Index Universe

(단위: %, X)

	EPS Growth (% YoY)		PE (X)		ROE (%)		PB (X)		EPS Changes (%)		Price (% Change)		Div Yield (%)
	FY1	FY2	12MF	Z-val	12MF	Z-val	12MF	Z-val	4W	24W	4W	24W	
MSCI AC WORLD	3.1	12.5	16.4	2.2	12.5	(2.3)	2.1	1.9	(0.7)	(1.0)	4.2	5.3	2.5
MSCI WORLD	1.8	12.5	17.0	2.1	12.7	(2.1)	2.2	1.9	(0.6)	(1.0)	3.6	5.0	2.5
MSCI WORLD ex US	3.3	11.8	16.3	2.3	10.6	(2.5)	1.7	1.9	(0.4)	(1.0)	5.5	6.4	3.1
MSCI EM	11.7	12.5	12.6	3.4	11.8	(1.8)	1.5	1.6	(1.0)	(1.5)	9.5	7.4	2.7
MSCI EM ASIA	13.0	10.5	12.6	3.4	12.3	(1.7)	1.5	1.1	(0.4)	(0.6)	8.9	13.4	2.5
MSCI EUROPE	3.1	12.6	16.4	2.2	11.3	(2.1)	1.8	1.9	(0.5)	(1.4)	4.5	5.6	3.4
MSCI EM EUROPE	29.1	15.6	7.7	3.2	9.2	(1.7)	0.7	(0.5)	0.2	(3.7)	12.1	(3.6)	4.1
MSCI NORTH AMER	(0.1)	13.5	17.6	2.0	14.7	(1.3)	2.6	1.8	(0.7)	(1.1)	2.6	3.7	2.1
MSCI EM LATIN AMER	(4.0)	20.6	14.7	2.9	11.2	(1.9)	1.7	1.7	(5.5)	(3.7)	12.5	(7.7)	3.2
미국	0.7	13.1	17.6	2.0	15.1	(1.0)	2.7	1.8	(0.7)	(1.0)	2.2	4.0	2.1
영국	(10.6)	13.2	16.1	2.4	11.1	(2.8)	1.8	1.1	(1.7)	(2.3)	3.9	5.8	4.0
일본	7.0	14.9	15.7	2.0	9.1	1.3	1.4	1.9	(0.6)	0.3	5.7	18.2	1.8
캐나다	(10.9)	19.5	17.5	2.7	10.4	(2.4)	1.8	1.4	(0.5)	(2.4)	3.0	4.6	2.8
프랑스	4.9	13.9	16.5	2.3	9.8	(1.4)	1.6	2.2	0.3	(1.4)	2.8	22.6	3.2
스위스	(4.7)	9.1	18.0	2.0	14.3	(3.0)	2.6	1.3	0.0	(1.4)	1.2	3.8	3.1
독일	11.3	11.4	14.9	2.1	12.3	(0.6)	1.8	2.2	(0.2)	(0.2)	(1.7)	25.3	2.8
호주	(1.4)	(0.8)	16.7	2.1	12.2	(1.9)	2.0	1.7	(0.9)	(1.0)	0.8	7.5	4.5
스웨덴	17.5	10.4	17.0	1.7	13.8	(0.6)	2.3	1.7	0.2	0.2	0.8	19.0	3.6
스페인	17.7	17.0	15.7	1.6	9.2	(0.8)	1.4	1.6	0.3	(0.7)	1.1	13.3	3.6
홍콩	(0.4)	8.6	16.7	2.8	8.1	(1.5)	1.3	1.8	(0.6)	(0.6)	9.2	10.6	2.7
네덜란드	16.3	11.0	17.4	2.1	12.3	(0.4)	2.1	2.3	(0.4)	(1.0)	2.1	24.9	2.7
이탈리아	178.3	19.4	15.8	2.1	7.2	(1.0)	1.1	2.2	(0.3)	(3.4)	1.5	19.4	3.3
싱가포르	3.5	9.1	13.9	1.0	9.7	(1.0)	1.4	(0.0)	(0.3)	(0.3)	2.7	6.6	3.6
벨기에	14.0	8.6	19.0	2.0	12.3	1.6	2.3	2.0	(0.3)	(0.1)	0.8	25.6	2.9
덴마크	13.0	15.3	20.1	2.5	18.4	2.4	3.7	2.9	1.3	(0.2)	2.8	32.7	2.1
핀란드	3.7	6.3	17.6	1.5	12.9	1.3	2.3	1.7	0.2	0.4	(2.4)	13.9	3.9
노르웨이	(14.0)	9.8	13.2	2.5	10.1	(2.5)	1.3	(0.3)	(0.6)	(1.7)	4.4	4.8	3.9
이스라엘	5.4	2.3	11.5	2.0	9.4	(1.5)	1.1	(0.8)	0.1	0.1	(3.7)	6.9	2.7
아일랜드	26.3	23.0	19.1	(0.0)	10.5	1.9	2.0	2.8	1.1	1.1	7.2	35.5	2.1
오스트리아	2,361.8	26.2	13.4	2.0	7.4	(1.2)	1.0	1.5	(0.4)	(19.4)	8.6	20.3	2.9
포르투갈	41.3	15.9	15.9	0.8	10.1	1.0	1.6	1.7	1.8	(0.2)	4.9	14.0	3.5
뉴질랜드	2.4	9.8	18.2	0.9	10.6	(1.0)	1.9	0.6	(0.2)	(0.4)	(1.8)	(1.1)	4.6
중국	3.7	13.3	12.3	4.8	12.9	(2.0)	1.6	2.2	(1.5)	(1.0)	18.7	33.1	2.5
한국	32.5	5.9	10.2	2.1	9.9	(1.6)	1.0	(0.6)	1.3	(0.6)	3.7	5.8	1.6
대만	11.1	7.4	13.2	(0.6)	13.5	1.7	1.8	1.5	(0.1)	0.8	4.5	10.0	3.5
인도	13.8	18.1	16.9	1.7	15.3	(1.6)	2.6	1.5	(1.0)	(1.3)	(3.7)	(1.8)	1.7
말레이시아	5.7	9.1	16.0	1.6	11.5	(2.2)	1.8	(1.4)	(0.7)	(1.5)	1.4	1.2	3.1
인도네시아	7.2	13.7	14.7	1.0	19.2	(1.5)	2.8	(0.7)	(0.6)	(0.6)	(6.9)	4.1	2.6
필리핀	10.4	12.8	19.9	1.2	14.5	(1.3)	2.9	0.8	(0.2)	(0.3)	(0.9)	9.2	2.0
태국	16.1	14.5	13.9	1.8	14.0	(2.0)	1.9	0.1	(0.8)	(1.8)	1.4	(2.8)	3.2
브라질	(14.6)	24.1	13.0	3.4	10.5	(2.2)	1.4	1.4	(8.3)	(5.2)	8.4	4.7	4.1
칠레	17.7	21.5	16.2	1.0	10.3	(1.0)	1.7	(0.3)	(2.2)	(1.5)	4.2	4.6	3.3
콜롬비아	(15.8)	32.2	17.2	2.0	7.4	(1.4)	1.3	(0.9)	(3.0)	(5.8)	8.0	(12.0)	2.2
멕시코	26.4	12.0	18.9	1.4	13.2	(1.0)	2.5	0.1	(0.8)	(0.7)	3.4	2.5	2.0
페루	7.9	18.9	13.9	1.8	14.3	(1.1)	2.0	(0.7)	(0.8)	(1.7)	9.0	0.3	1.7
체코	9.0	(4.8)	14.4	1.9	10.0	(1.2)	1.4	(0.1)	1.2	0.6	(0.4)	4.8	5.4
이집트	87.2	21.9	11.8	1.5	11.8	(0.2)	1.4	0.9	1.8	(5.5)	(6.0)	(6.1)	3.2
그리스	(523.3)	56.3	9.7	(0.6)	6.6	(0.7)	0.6	(1.0)	(6.9)	386.1	1.5	(26.6)	2.9
헝가리	33.6	35.3	14.1	4.4	7.8	(1.3)	1.1	3.7	(0.3)	(3.9)	17.8	36.8	2.7
폴란드	18.1	4.9	14.7	1.7	9.5	(0.8)	1.4	2.2	(0.3)	(0.5)	6.6	6.5	3.7
러시아	29.2	15.8	5.5	1.7	8.7	(1.7)	0.5	(0.8)	1.0	(4.8)	16.9	(0.3)	4.8
남아공	4.0	13.8	17.3	2.5	14.5	(2.1)	2.5	1.9	(0.4)	(1.1)	5.3	13.8	3.0
터키	11.1	15.3	10.2	0.5	13.2	(1.6)	1.3	(0.5)	(0.9)	(0.2)	5.9	8.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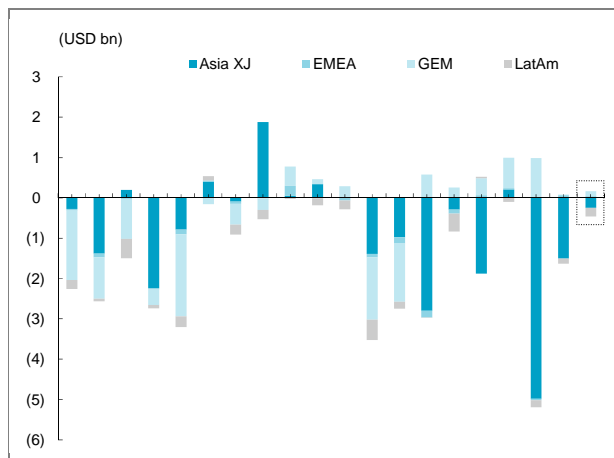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주식형 주간 펀드 플로우 -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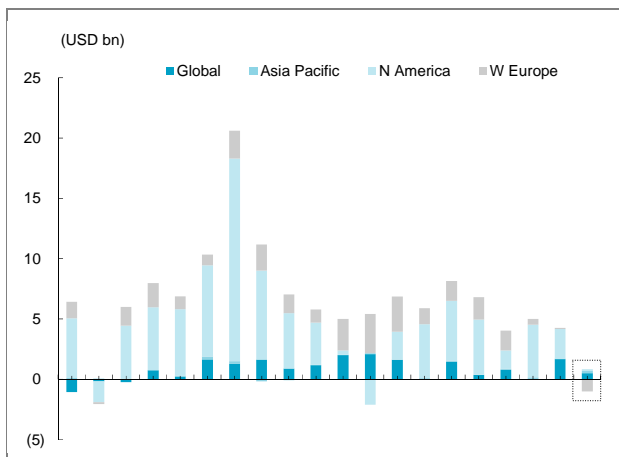
주: 표시한 부분은 4/30 - 5/6 기간 플로우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주식형 주간 펀드 플로우 - 신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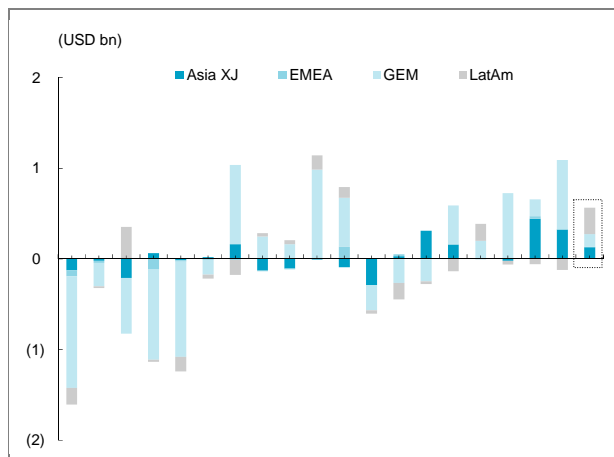
주: 표시한 부분은 4/30 - 5/6 기간 플로우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채권형 주간 펀드 플로우 - 선진국



주: 표시한 부분은 4/30 - 5/6 기간 플로우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채권형 주간 펀드 플로우 - 신흥국



주: 표시한 부분은 4/30 - 5/6 기간 플로우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3〉 COT(Commitments Of Traders) Report – Non Commercial Position

	Category	Commodity	Price Weekly Chg	Number of Contracts		52-Week Z-Score		
				Weekly Chg	Net Position	Price	Net Position	Net Position Weekly Chg
1	Fixed Income	CBOT 2 YR US TREASURY NOTES	(0.1%)	(4,197)	169,298	(1.47)	2.09	↘
2		CBOT 5 YR US TREASURY NOTES	(0.6%)	(70,569)	(81,465)	(0.24)	(1.99)	↘
3		CBOT 10 YR US TREASURY NOTES	(1.2%)	(84,551)	(183,116)	0.34	(1.23)	↘
4		CBOT 30 YR US TREASURY NOTES	(3.3%)	7,523	10,973	1.39	0.06	↗
5		CBOT ULTRA-LONG U.S. TREASURY BONDS	(3.8%)	4,713	(32,819)	0.10	(1.29)	↗
6	Stocks	CME S&P 500 STOCK INDEX	(1.3%)	(503)	9,962	1.17	1.15	↘
7		CME E-MINI S&P 500	(1.3%)	(44,708)	(79,297)	1.17	(1.07)	↘
8		CME E-MINI NASDAQ 100	(2.4%)	(21,508)	66,873	1.26	0.90	↘
9		CBOT E-MINI DJIA	(1.1%)	(9,147)	7,292	1.06	(0.69)	↘
10	FX	CME BRITISH POUND STERLING	(1.1%)	9,370	(24,758)	(1.00)	(0.67)	↗
11		CME EURO	2.0%	7,639	(190,127)	(1.16)	(0.83)	↗
12		CME CANADIAN DOLLAR	(0.3%)	10,829	(10,080)	(0.84)	0.23	↗
13		CME MEXICAN PESO	(0.7%)	(26,725)	(50,116)	(1.46)	(0.97)	↘
14		CME AUSTRALIAN DOLLAR	(0.9%)	28,031	626	(0.97)	0.35	↗
15		CME JAPANESE YEN	(0.8%)	(25,690)	(31,183)	(1.02)	1.49	↘
16		CME NEW ZEALAND DOLLARS	(2.0%)	(1,116)	9,064	(0.91)	0.61	↘
17		CME SWISS FRANC	3.0%	3,996	5,331	0.34	1.71	↗
18		CME BRAZILIAN REAL	(5.4%)	251	(4,766)	(1.17)	0.07	↗
19		ICE US DOLLAR	(1.0%)	(5,657)	58,927	1.09	0.60	↘
20	CME 3-MONTH EUROS	(0.0%)	(180,990)	245,278	(1.42)	1.21	↘	
21	Metals	CMX GOLD	(1.7%)	(28,817)	72,440	(0.92)	(0.96)	↘
22		CMX SILVER	(0.2%)	4,693	27,623	(0.73)	0.13	↗
23		CMX PLATINUM	(0.8%)	81	25,316	(1.17)	(0.74)	↗
24		CMX PALLADIUM	1.8%	568	18,621	(0.43)	(0.96)	↗
25		CMX COPPER	5.8%	15,631	(452)	(0.01)	1.13	↗
26	Softs	ICE COTTON	0.6%	6,257	59,809	(0.00)	1.92	↗
27		ICE COFFEE	(4.1%)	(2,201)	(3,563)	(1.70)	(1.98)	↘
28		ICE SUGAR	(3.2%)	(7,204)	36,015	(1.59)	(0.16)	↘
29		ICE FROZEN ORANGE JUICE	1.0%	155	(3,980)	(1.70)	(1.39)	↗
30		ICE COCOA	0.4%	(1,566)	35,723	(0.41)	(1.49)	↘
31	Grain	CBOT WHEAT	(1.6%)	(7,493)	(77,413)	(1.60)	(1.79)	↘
32		KCB WHEAT	(2.2%)	(2,228)	(26,969)	(1.77)	(2.56)	↘
33		MGE WHEAT	(2.9%)	263	(2,939)	(1.65)	(1.66)	↗
34		CBOT SOYBEAN	1.6%	2,941	(943)	(0.61)	(0.25)	↗
35		CBOT CORN	0.1%	(30,807)	(30,432)	(0.63)	(2.19)	↘
36		CBOT SOYBEAN OIL	5.3%	21,845	62,565	(0.27)	1.27	↗
37		CBOT SOYBEAN MEAL	(0.2%)	(2,205)	26,187	(1.09)	(1.35)	↘
38	Livestock	CME FEEDER CATTLE	(0.3%)	(503)	4,153	(0.17)	(0.36)	↘
39		CME LEAN HOGS	7.1%	6,633	(3,345)	(0.60)	(1.66)	↗
40		CME LIVE CATTLE	(5.9%)	5,166	75,561	(0.61)	(0.15)	↗
41	Oil	NYM CRUDE OIL	5.9%	10,862	325,706	(0.68)	0.21	↗
42		NYM GASOLINE RBOB	3.1%	473	59,252	(0.26)	(0.17)	↗
43		NYM NATURAL GAS	10.4%	9,898	(243,987)	(1.17)	(1.20)	↗
44		NYM HEATING OIL	5.1%	3,153	(10,801)	(0.70)	0.57	↗
45		ICE EUROPE GASOIL	5.5%	(834)	(24,806)	(0.57)	(1.50)	↘
46		ICE NATURAL GAS HENRY HUB	10.4%	125,792	51,593	(1.17)	(0.77)	↗
47		ICE CRUDE OIL, LIGHT SWEET	5.9%	(6,398)	22,358	(0.68)	(1.20)	↘
48	Foodstuff	CME MILK (class III)	3.2%	(637)	9,499	(1.05)	(0.24)	↘

주: Price Weekly Chg 는 COT Report Data 와 동일 기간 기준으로 계산
 자료: CFTC,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4〉 Global Sector Universe

(단위: %, X)

	EPS Growth (% YoY)		PE (X)		ROE (%)		PB (X)		EPS Changes (%)		Price (% Change)		Div Yield (%)
	FY1	FY2	12MF	Z-val	12MF	Z-val	12MF	Z-val	4W	24W	4W	24W	
US-Energy	(60.5)	58.6	31.2	3.7	5.8	(2.8)	1.8	1.3	(4.0)	(6.7)	5.4	(5.1)	2.9
CH-Energy	(44.3)	49.0	17.2	5.6	6.4	(2.4)	1.1	(0.5)	(5.8)	(7.6)	17.7	10.4	2.4
US-Chemicals	4.8	13.0	16.8	1.3	23.3	3.9	3.9	2.3	0.5	(0.7)	4.0	4.9	2.1
GE-Chemicals	6.6	11.2	17.5	2.3	15.1	(1.1)	2.6	2.4	0.2	(0.3)	(1.3)	28.6	2.7
AU-Metals	(39.2)	(19.9)	19.7	4.6	8.4	(2.3)	1.7	(0.8)	(7.3)	(6.8)	4.8	(1.7)	4.5
US-Aerospace	3.3	9.8	16.3	1.3	25.9	1.5	4.2	1.8	(0.0)	(0.6)	(1.5)	7.3	2.1
US-Industrial Congl	(12.3)	16.6	19.6	2.9	14.7	0.4	2.9	2.5	(8.9)	(1.8)	4.3	2.6	2.8
GE-Industrial Congl	3.1	13.1	14.7	1.9	16.8	(1.2)	2.5	1.1	(6.5)	(3.3)	0.5	13.8	3.6
US-Machinery	(6.9)	6.8	16.7	1.6	17.9	(0.9)	3.0	1.9	(1.0)	(1.3)	2.7	(3.7)	2.3
US-Logistics	13.6	12.3	17.8	1.0	30.9	1.6	5.5	1.4	(0.3)	(0.8)	2.2	(4.4)	2.0
US-Automobiles	39.4	17.3	10.3	0.5	20.6	(0.2)	2.1	0.7	(0.3)	0.0	0.2	6.1	3.0
GE-Automobiles	16.1	11.5	10.5	1.8	13.7	1.2	1.4	2.8	0.8	0.6	(2.6)	38.4	3.0
JP-Automobiles	11.6	14.8	11.0	0.4	12.7	0.9	1.4	1.3	(0.3)	0.3	3.5	19.2	2.5
US-Apparel	0.9	14.4	21.9	1.7	21.4	(0.9)	4.7	1.1	(1.2)	(1.3)	(1.7)	3.9	1.1
FR-Luxury	22.5	9.3	19.1	2.4	14.7	0.4	2.8	2.0	1.1	0.0	(2.7)	24.0	2.3
SW-Luxury	14.4	9.4	18.2	1.9	13.8	(3.0)	2.5	(0.5)	1.1	(2.0)	7.6	0.4	1.9
US-Restaurant	6.7	16.1	22.6	2.5	26.7	1.7	6.0	2.3	(1.6)	(1.3)	1.1	7.7	2.3
US-Media	11.3	16.9	19.5	1.4	19.3	0.9	3.7	1.4	(0.3)	(0.2)	3.2	11.7	1.2
US-Internet Retail	13.6	39.6	59.6	3.4	16.1	(0.6)	9.6	2.6	(2.4)	(2.3)	13.4	27.0	0.0
US-Multiline Retail	7.4	10.7	17.1	1.4	22.6	2.9	3.9	2.5	0.2	1.0	(1.2)	19.0	1.8
US-Specialty Retail	11.4	14.0	19.2	1.6	38.6	1.8	7.4	2.0	(0.2)	(0.1)	(2.8)	13.6	1.5
US-F&S retailing	6.3	11.0	18.8	1.8	17.4	0.7	3.3	1.7	(0.0)	(0.3)	(2.6)	9.4	1.9
US-Beverage	(1.3)	8.1	20.7	1.8	30.4	4.0	6.3	2.8	(0.4)	(0.6)	(0.1)	(0.0)	2.8
SW-Food Products	(20.9)	7.6	23.2	2.2	14.3	(3.1)	3.3	0.7	0.0	(1.0)	1.9	4.8	2.7
US-Food Products	5.1	9.7	19.0	2.0	16.7	2.8	3.2	2.5	(0.3)	(0.8)	(0.1)	4.2	2.2
US-Tobacco	(1.5)	8.1	18.0	2.1	-	-	-	-	0.7	(0.8)	7.4	1.2	4.6
US-HH Products	(17.4)	20.1	23.1	3.7	31.5	(1.8)	7.3	1.9	(1.1)	(2.4)	1.3	5.3	1.5
FR-PS Products	17.3	8.0	27.1	2.1	15.8	0.9	4.3	2.7	1.3	0.6	1.5	33.8	1.8
US-Biotechnology	18.0	20.1	19.2	0.4	33.9	1.6	6.5	1.4	0.5	(0.3)	(0.2)	4.5	0.6
US-Pharmaceuticals	3.8	12.0	17.5	1.4	20.1	(0.9)	3.5	1.0	(0.4)	(0.2)	1.7	6.4	2.4
US-Financials	15.5	10.1	14.0	1.1	9.1	1.1	1.3	1.2	0.1	(0.5)	0.8	0.8	2.2
CH-Banks	4.8	6.3	6.7	1.9	15.7	(2.3)	1.1	0.6	(1.8)	(0.5)	21.8	39.6	4.8
JP-Banks	1.1	(2.4)	11.3	1.4	7.4	0.6	0.8	1.5	0.1	1.2	12.6	21.9	2.3
US-Internet	8.0	18.0	24.5	1.3	13.1	(2.6)	3.2	0.2	(0.7)	(0.7)	0.5	3.8	0.1
CH-Internet	29.3	31.2	36.0	1.7	28.0	(0.7)	10.1	1.7	(0.7)	(0.4)	11.1	28.2	0.3
US-IT Services	2.9	9.4	17.0	2.8	31.0	(2.6)	5.3	1.3	(0.4)	(0.7)	2.7	7.2	1.5
US-Software	(1.8)	14.1	19.7	2.4	21.1	(1.4)	4.2	2.5	(0.6)	(1.3)	10.8	4.8	1.6
US-Comm Equip	0.2	7.1	14.1	2.0	20.5	1.3	2.9	2.0	(0.8)	(0.4)	3.8	9.2	2.5
US-Computer	25.5	7.7	13.2	1.5	30.7	2.2	4.1	2.0	0.3	0.7	5.3	12.3	1.7
US-Semi	3.5	13.3	15.1	0.9	20.6	1.3	3.1	1.8	(1.4)	(0.9)	0.3	4.4	2.2
TW-Semi	11.8	7.6	12.5	(1.1)	20.1	1.5	2.5	1.0	(2.5)	0.4	2.5	9.3	3.6
US-Telecom	9.0	5.1	14.6	(1.0)	22.6	1.6	3.3	1.7	1.0	(0.5)	5.0	0.1	4.5
CH-Telecom	3.4	8.1	17.0	4.0	10.1	(1.6)	1.7	1.8	(1.9)	(0.3)	17.3	24.8	2.5
US-Utility	2.0	3.9	16.6	1.3	9.8	(0.2)	1.6	1.3	(0.1)	(0.2)	1.1	(3.0)	3.6
CH-Utility	19.8	10.2	14.2	2.8	14.4	0.9	2.0	2.0	(0.2)	(0.6)	21.0	19.9	2.4

자료: Thomson Reuters,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해외자금, 정책 등으로 주요 이머징 혼조세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경기개선 전망, 외국인 순매도세 유지, 매물 증가 등에 약보합세 마감
- ▶ VN지수는 연료 가격 및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로 물가 상승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

자카르타종합지수 하루 만에
반락, 금융 등 업종 약세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정부의 투자 확대에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장중 강세가 우세했다. 그러나 마감 직전에 매물 증가로 소폭의 하락세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연속 순매도세를 유지해 대현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에너지, 금융 관련주가 하락한 반면 금속, 팜오일 가격 상승으로 관련주가 올랐다.

VN지수 0.5% 하락
통신, 금융 등 관련 업종
동반 하락

■ 베트남 시장

VN지수는 0.5% 하락하며 550선을 위협했다. 연료 가격 및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로 물가 상승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기준환율 추가 인상 이후 외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보험, 부동산, 건설, 통신 관련 업종은 동반 하락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최근 급락 이후 저가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수산물 업체 VNH는 상한선을 기록했다.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4월 CPI 전년동월비 상승률 1.5% (직전치 1.4) 4월 PPI 전년동월비 상승률 -4.6% (지 3전치 -4.6%) 4월 무역수지 누적 1578.6억달러 (2014년 1~4월 360.5억달러)
인도	4월 자동차 판매량 15.9만대 (직전치 17.6만대)
베트남	경제 및 정책 연구원,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로 2015년 물가 상승률은 3%로 확대
베트남	국가재정감찰위원회, 연료 가격 인상으로 5월 CPI는 yoy 0.96% 전망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5/11(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4,333.58	3.04	-3.28	-2.43	33.97
홍콩 H	14,182.98	0.95	-1.91	-1.72	18.34
중국 차스닥	3,146.83	5.83	10.60	10.11	113.81
인도 SENSEX	27,467.80	1.34	-0.08	1.69	-0.11
인도네시아 JCI	5,177.61	-0.09	0.71	1.79	-0.94
태국 SET	1,511.40	0.06	-0.73	-1.00	0.92
베트남 VN	551.67	-0.51	1.21	-1.91	1.11
MSCI 이머징마켓	1,034.94	0.98	-1.27	-1.23	8.22

주: 11일 오후 5시 55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중국과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상승 마감

- 미국증시는 개장 전 발표된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미국 경기 침체 및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해소되며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 마감. 2,100P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1% 이상 급등하며 2,110P까지 상승했으나 투신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상승폭이 둔화되며 2,097P로 마감했으나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 코스닥은 사모, 투신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1.5% 이상 급등하며 6거래일 만에 690P선을 회복하며 사흘 연속 상승 마감.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완화가 어우러지며 투자심리가 개선됨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1분기 실적 호조 및 중국 사업 성장 기대감에 CJ CGV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 건설사업관리(CM) 분야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한미글로벌이 급등했으며, 생산시설 증대에 따른 매출 확대 기대감에 삼성엔지니어스가 닷새 연속 급등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감. 1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한 휴메딕스, 롯데하이마트, 종근당바이오, 동아에스티 등이 강세를 보였으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함에 따라 증시 활황 기대감에 증권주가 강세를 보임. 내추럴엔도텍 대체제로 부각된 경남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한 반면, 내추럴엔도텍은 7거래일 연속 하한가 행진을 이어감. 또한, 네오위즈인터넷 인수를 결정한 NHN엔터테인먼트는 인수 발표 후 이를 연속 급락하며 신저가를 기록했으며, 네오위즈인터넷도 이를 연속 급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CJ CGV(079160) ▶93,800(상한가)	1분기 실적 호조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사업의 영업적자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며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4.28%, 50.85% 178.51%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2분기에는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어벤져스2' 등 할리우드 대작의 흥행 효과로 중국사업이 흑자전환할 것으로 기대
한미글로벌(053690) ▶13,400(+8.06%)	CM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1위이자 유일한 순수 CM(건설사업관리) 업체로서, CM 분야 성장에 따른 수혜 전망에 급등세. CM은 전문인력과 체계화된 시스템 및 경험을 바탕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해 발주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설관리를 의미 - 현재 재건설/재개발 시장에서 미국은 CM 침투율이 50%에 육박한 반면, 국내 시장은 불과 4.8% 밖에 되지 않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
증권주	1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가 사흘만에 다시 2,100P선을 회복한 가운데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및 후강통 증개로 인한 해외 주식 중개 수수료 등에 따른 1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강세 - 삼성증권(016360, 6.44%),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4.53%), 대우증권(006800, +3.30%), 한화투자증권(003530, +3.25%), 동부증권(016610, +3.07%)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신우(025620) ▶5,270(상한가)	-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일환으로 부동산 자산 259억원 규모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이는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대비 84.49%에 해당하는 규모임
삼성제약(001360) ▶12,650(상한가)	- 지난 2월 중국시장에서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화아이엠을 인수했으며, 최근 중국 유통기업인 화랜상사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중국 화장품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신고가 행진
신세계푸드(031440) ▶166,500(+6.39%)	- 자체브랜드(PB) 식품 확산의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에 신고가 경신. 한국소비시장에서 가치소비 및 PB 식품의 확산이 향후 10~20년간의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KT&G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KT&G (033780)	95,900 (+0.2)	95,700 (5/08)	- 가격인상으로 연초 감소했던 담배수요 및 시장 점유율의 점진적인 회복세와 ASP 개선 및 비용통제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예상 - 담배 수출 증가와 홍삼사업의 면세 실적 및 내수 수요 회복을 통한 실적 개선과 배당 매력도(금년 예상 DPS 3,700원)를 주목할 필요
백산 (035150)	4,900 (-1.5)	4,975 (4/28)	- LF쏘나타를 통해 진입에 성공한 시트용 합성피혁 부문 적용 모델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 가능 전망 - 캐시카우인 신발부문은 경쟁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으로 전년대비 15% 이상 성장 예상 - 카시트 적용 모델 확대, 모바일 제품으로의 가족 케이스 공급 등 사업포트폴리오 확대를 감안할 때 추가 상승여력 상존
디티앤씨 (187220)	25,900 (-4.6)	27,150 (4/28)	- 정보통신기기, 의료기기 등에 강점 보유한 시험인증 전문기업으로 기간산업 인증센터를 통해 원자력, 자동차, 열차 부문으로 사업영역 확대 도모 - 국내외 인증시장의 성장세, 높은 진입장벽, 고부가가치 분야 위주의 사업모델 등을 감안할 때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 지속 예상
영원무역 (111770)	66,800 (+25.8)	53,100 (3/31)	- 의류 OEM부문은 원화 약세, 방글라데시 인건비 상승 둔화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지역은 신규 바이어 위주로 고성장 예상 - 연간 기준 두 자리수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원가 경쟁력과 높은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 지속 전망
영풍정밀 (036560)	10,500 (+2.9)	10,200 (2/27)	- 밸브의 부진으로 2014년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저가 수주가 마무리됨에 따라 영업이익률 두 자리수대 회복 - 제품믹스 개선, 매출 다변화, 증설효과 등을 감안할 때 2015년 실적 개선 모멘텀에 대한 기대 유효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의 지분가치가 시가총액의 150%(PBR 0.5배)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 내재
진성티이씨 (036890)	6,430 (+13.4)	5,670 (2/16)	-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향 매출은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 글로벌 메이저 굴삭기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확대 추세 속에 Bobcat, Komatsu 등으로의 공급 물량 확대 예상. 해외 고객사 비중이 늘어나는 점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요인 -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을 인하 결정, ECB의 양적완화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기 재안정화 기대 유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KT&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KCC (002380)	530,000 (-5.9)	563,000 (3/31)	3,528	329	260	26,571	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자재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재료 매입액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2014년 기말 배당금을 6년만에 주당 8천원으로 1천원 상향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 노력 - 안정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풍부한 자산가치를 감안할 때 재평가 가능성 상존 				
현대모비스 (012330)	236,000 (-4.8)	248,000 (2/2)	38,488	3,297	4,058	42,468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와 준중형모델들의 ADAS(운전보조장치) 채택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 - 현대/기아차의 누적 판매 대수 확대에 따른 AS부품 판매의 구조적 증가와 이익 방어력을 주목할 필요 - 견고한 펀더멘털 및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엔씨소프트 (036570)	201,000 (+11.4)	180,500 (1/2)	861	266	220	11,035	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 가운데 기존 게임의 ARPU 상승과 길드워2 확장팩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예상 - 리니지1의 수익성 높은 신규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의 추가 구성상품 선택을 통한 ARPU 상승 예상 - 2015년에는 블레이드앤소울 TCG, 패션스트리트, 팜야 등 모바일 게임 다수 출시 예정 				
LG하우시스 (108670)	156,500 (-1.9)	159,500 (1/2)	3,137	163	123	12,279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PVC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 건자재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관련 소재도 거래처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을 전망 - PVC, 가소제, MMA 등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미국에 자동차 원단 공장 증설, B2C 건자재 확대(온라인 '지인몰' 오픈 등) 등 다각적 투자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강화 				
LG생활건강 (051900)	835,000 (+35.1)	618,000 (1/2)	5,083	600	427	25,640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 -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SK하이닉스 (000660)	46,300 (-3.0)	47,750 (1/2)	19,340	6,100	5,180	7,120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D램 수요 확대로 D램 가격 안정세 지속 - 애플 및 OEM 수요,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영업활동을 통한 순현금 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 및 주주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유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생활건강,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CC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영원무역(111770)

매수(유지)

목표가: 78,000원(유지)

종가(5/8): 66,700원

불확실성 속에 더욱 돋보이는 경쟁력!

■ What's new : 높은 기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실적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8%, 15% 증가한 2,497억원, 32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우리와 시장 예상을 각각 7%, 19% 상회했다. 2014년 1분기 주문 집중으로 달러 기준 매출 성장률이 약 35%에 달했으나 이를 상회하는 실적 호조를 시현했다. 작년 2분기 인수한 Outdoor Research 신규 매출액 162억원이 발생했고, 이를 제외한 매출액도 10% 증가했다. 1분기 원/달러 환율이 전년대비 2.9% 상승한 영향도 있으나 의류, 신발 OEM 원화 매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8.3%, 20% 증가해 달러 기준으로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234억원을 기록했다.

■ Positives : 금년 OEM 수익성 변수 긍정적. 지속 투자로 복합 모델로 진화 중

금년 OEM 사업부 수익성 변수는 긍정적인데, 1) 완만한 원화 약세, 2) 인건비 증가율 둔화, 3) 생산성 개선이 주요인이다. 1분기 매출총이익률이 전년대비 0.7%p 개선되었다. 영업이익률은 12.8%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으나 Outdoor Research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미미해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률은 소폭 개선되었다. 인건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고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외주/용역 수수료 비용도 감소했다. 2분기부터는 원/달러 환율 기저가 낮다. 최근 완만한 원화 약세는 2,3분기 성수기에 긍정적이다.

금년 브랜드 사업 등 일련의 투자 성과가 예상된다. 2분기부터는 Scott 실적이 반영된다. 금년 Scott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4,320억원과 246억원(영업이익률 5.7%)으로 전망한다. Scott 실적은 회계 기간 차이, 유로화 약세, 그리고 과거 분기 실적에 대한 정보 부재로 실적 추정에 일부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탑티어 자전거업체로 브랜드 경쟁력이 있으며, 이번 인수로 인해 레벨 업 되는 외형 성장, 기능성 스포츠 브랜드 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 적극적인 투자와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다.

■ Negatives : 의류 OEM 사업 달러 성장 둔화 , 다양한 성장 사업으로 만회

금년 의류 OEM 사업은 달러 기준 성장률이 둔화가 될 전망이다. 의류 OEM 원화 기준 성장률을 15%에서 10%로 하향한다. 글로벌 미 달러 강세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미주 스포츠 브랜드 업체들의 달러 성장률이 2014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또한 No.2 바이어로 성장한 Engelbert Strauss의 주문 둔화가 예상된다. 다만 완만한 원화 약세로 인해 2015년 성장률은 2014년 원화 기준 12.5% 성장률과는 대동소이하고 다양한 성장 사업으로 만회할 전망이다.

■ 결론 : 중장기 Top pick으로 유지. 핵심 사업 경쟁력에 성장 전망 강화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8,000원(12MF PER 20배)을 유지한다. 글로벌 경기, 환율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경쟁력이 돋보인다. 첫째, 동사는 수요처와 생산처가 다각화되어 특정 외부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40개 내외의 바이어를 확보, 의류 OEM 업체 중 특정 고객 의존도가 가장 낮다. 둘째, 원가 경쟁력이 있는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에서 캐파를 선제적으로 확대하면서 신규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원가 경쟁력과 바이어에 대한 높은 가격 협상력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지켜오고 있으며 금년 의류 OEM 사업의 수익성 변수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공격적인 투자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스포츠의류 OEM(Eclat, Feng Tay) 2015F PER 평균은 27배이고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및 자전거 브랜드 10개사 평균은 25배이다. 최근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5F PER 18배, 2016F PER 15배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업종 내 Top pick으로 유지한다.

	1Q15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39	250	4.5	224	(13.3)	17.7	1,815	1,736
영업이익	30	32	6.7	29	36.2	14.5	240	228
영업이익률	12.6	12.8	0.3	12.8	4.7	-0.4	13.2	13.1
세전이익	30	32	8.0	32	24.6	4.2	240	227
순이익	23	25	10.4	24	25.1	7.6	182	17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5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DGB금융지주(139130)

매수(유지)

목표가: 18,700원(유지)

종가(5/8): 12,000원

분기 순이익 1천억원을 넘겨봤다는 데 의미를 두자

■ What's new : DGB생명보험 편입으로 인한 예상 밖 요인 제외하면 전망에 부합

1분기 순이익을 1,056억원으로 발표했다. 전년 실적 발표 후 제시했던 전망치(788억원)를 무려 34%나 상회했는데, 현 단계에서는 이익창출능력과 수준에 대한 확신이 어려운 DGB생명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의의는 반감된다. 순이익과 전망치의 차이 268억원에서 DGB생명으로 인한 것은 약 214억원으로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존 전망에 부합한 결과로 평가하고, 기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한다. 대구은행은 NIM 하락에도 불구하고 순이자 이익은 소폭 감소에 그쳤고, 대손비용도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또 유가증권운용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도 크게 늘었다. 표면적으로는 양호한 1분기를 반영해 연간 순이익과 배당전망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소폭 상향했다.

■ Positives : 연간 순이익과 배당금 전망을 소폭 상향. 기대배당수익률 2.9%로 높음

1) 작년 DGB생명 인수를 둘러싼 시장 반응은 '신경질' 자체였다. 겨우 1개 분기가 지났으므로 단언하기 이르지만, 시장반응은 근시안적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매입가격 700억원 PBR 0.5배에 불과해 연결자기자본 증대에 기여했고, 일회성일지라도 1분기 이익 증대에 기여한 점은 우려가 지나쳤음을 보여준다. 2) 연간 이익과 배당 전망을 소폭 상향한다. 주당배당금 전망을 350원으로 40원 올렸다. 배당성향 가정은 20%로 18.7%에서 올렸다. D-SIB 규제에 비껴 있고, 당국의 배당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며, 주가가 절대적으로 낮아진 작년에 배당성향을 올린 경영진의 노력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 Negatives : DGB생명의 기여를 체계적으로 가늠하기는 아직은 이른 단계

1) DGB생명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1년은 지나야 해결될 것이다. 1분기의 일회성 요인들 중 DGB생명으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수 시점에 우리가 내다본 DGB생명의 연간 이익 창출 능력은 FY15, FY16, FY17 각각 20억원, 74억원, 118억원이었다. 1분기 DGB생명의 순이익 60억원은 작년 연간 261억원 적자 대비 크게 개선된 것인데, 영업외손익이 52억원의 흑자로 개선된 덕분이다. 2) 1분기 은행 NIM은 2.37%로 7bp(QoQ) 하락했다. NIM 절대수준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인 하락폭은 낮다. 한편 은행의 대손비용률은 54bp로 작년 연간 55bp를 하회했다.

■ 결론 : 우리의 ROE 전망은 9%인데, PBR은 0.6배 불과. 업종 네 번째 선호 종목

기존 목표가격 18,700원을 유지한다. 우리 가치평가에 따르면 목표가격은 21,000원으로 12% 상향 여력이 있다. 그런데 기존 목표가와 최근 종가의 괴리가 50%를 넘는데, 작년 대규모 증자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섞인 시선이 비은행자회사 확대 노력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단기간에 사라질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ROE 전망이 9%를 넘고, 기대배당수익률이 2.9%에 달하는 주식이 PBR 0.6배, PER 7.0배에 거래되는 것은 매우 낮다. 업종 내에서 KB금융(016360, 매수/TP 59,000원), 신한지주(055550, 매수/TP 63,000원), BNK금융지주(138930, 매수/TP 21,0000원)에 이어 네 번째 선호로 한 단계 올린다.

(단위: 십억원, %)

	1Q15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순이자이익	264.2	290.2	9.8	257.3	12.5	17.7	1,179.0	1,078.5
총전영업이익	163.6	191.6	17.1	153.1	132.7	53.7	617.2	568.8
금융자산 손상차손	54.3	49.1	(9.6)	50.3	30.2	(0.9)	218.9	188.0
세전이익	109.4	142.6	30.4	105.0	249.7	89.6	398.3	369.0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	78.8	105.6	34.1	77.6	265.6	96.6	289.8	265.8

*상기 보고서는 2015년 5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롯데쇼핑(023530)

매수(유지)

목표가: 290,000원(유지)

종가(5/8): 260,000원

2분기 현재 개선 중

■ What's new : 1분기 영업이익 2,672억원(-21.3% YoY)

롯데쇼핑의 1분기 실적은 시장과 우리의 추정치를 크게 하회했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4%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1.3% 감소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 부문 부진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롯데하이마트(071840, 매수/TP 92,000원)와 편의점 부문 실적은 양호했다. 백화점 기존점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했고 신규점 손실이 더해졌으며, 해외사업의 적자폭도 확대되었다. 할인점 부문은 국내사업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하는 등 크게 부진했던 반면, 해외사업 적자폭은 전년동기 34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개선되었다. 롯데하이마트와 편의점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78%, 228% 증가했으나 주요 사업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였다.

■ Positives : 해외 할인점 부문 손실폭 축소, 2분기 국내 매출 회복되는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할인점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아직 구조적인 변화로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손실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이다. 다만 2분기 이후 신규출점 재개에 따른 영업적자 재확대의 가능성도 있다. 2분기 현재 국내 사업 매출은 개선되는 중이다. 백화점의 기존점매출은 1분기와 달리 증가하고 있으며, 할인점 또한 2분기 기존점매출은 소폭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분기와 같은 큰 폭의 영업부진이 2분기에 재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Negatives : 소비경기 탓 만으로 돌리기엔 조금 더 부족한 실적

롯데쇼핑은 모든 유통 채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경기에 따른 영향이 가장 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소비침체 지속이 실적부진의 요인이긴 하지만, 경쟁사 대비 상대열위의 실적은 부정적 요인이다. 국내 할인점 부문에서는 신선식품 등의 상품경쟁력 부재가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백화점의 경우 전국에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한 점이 오히려 실적 부진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분기 소비는 1분기보다는 개선되는 추세이며, 롯데쇼핑의 영업손익도 같은 추이로 예상한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90,000원 유지

단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2분기 이후 영업이익이 유지될 경우 PBR 0.4배의 valuation 매력에 부각될 수 있다. 또한 해외 할인점 영업개선의 가능성도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손익개선폭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롯데쇼핑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9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11.8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12MF PER 13.3배에 해당한다.

	1Q15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7,156	6,935	(3.1)	7,004	(6.4)	2.2	29,288	29,134
영업이익	351	267	(23.8)	317	15.3	(21.3)	1,160	1,260
영업이익률	4.9	3.9	(1.0)	4.5	0.7	(0.8)	4.0	4.3
세전이익	329	192	(41.7)	287	250.5	(23.8)	1,066	1,172
순이익	188	106	(43.6)	177	NM	(17.7)	609	718

*상기 보고서는 2015년 5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롯데하이마트(071840)

매수(유지)

목표가: 92,000원(유지)

종가(5/8): 71,600원

기대이상의 실적, 2분기 모바일과 에어컨 호조 예상

■ What's new : 1분기 영업이익 354억원(+77.7% YoY)

롯데하이마트의 1분기 실적은 시장과 우리의 추정치를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한 354억원이었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8,589억원을 기록했다. 기존점매출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샵인샵 점포수 증가가 전체 외형성장을 이끌었다. 상품군별로는 Mobile/PC와 백색가전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7%, 9% 증가했고, 생활가전은 샵인샵 확대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했다. 반면 TV가 포함된 AV가전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했다.

■ Positives : 이익 정상화의 과정

1분기 영업이익률은 4.1%였다. 4.7%를 기록한 2012년보다 낮지만 구매통합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었던 전년동기 2.5%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향후 샵인샵 점포당 매출 개선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영업이익률 5%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롯데하이마트의 실적은 이익 정상화의 과정에 있다. 같은 이유로 2분기와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매출증가율은 6% 수준에 불과하지만 모바일과 에어컨 매출 증가에 따른 상품마진 개선과 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률 상승이 예상된다.

■ Negatives : AV가전 부진

TV 등 AV가전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모바일과 생활가전, 백색가전 모두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6.7%에 머물렀다. 온라인 또는 해외직구 대비 가격경쟁력을 감안할 때 매출 하락은 구조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미 상당부분 매출비중이 축소되어 있으며, 갈수록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가전제품 렌탈 시장이 형성될 경우 구조적 매출 하락을 대체할 여지는 충분하다. 현재 시점에서 부정적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되는 이슈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2,000원 유지

롯데쇼핑(023530, 매수/TP 290,000원)과 롯데하이마트의 가전상품 구매통합으로 중장기 협상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도 실적 정상화에 따른 이익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TV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모바일 매출은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활 가전 비중 확대에 따른 상품마진 상승도 예상된다.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2,000원을 유지한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12.6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 주가는 12MF PER 16.2배에 해당한다.

	1Q15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852	859	0.9	862	(10.1)	6.7	3,994	4,092
영업이익	26	35	38.6	27	19.1	77.7	186	188
영업이익률	3.0	4.1	1.1	3.2	1.0	1.6	4.6	4.6
세전이익	21	32	49.6	21	28.8	112.8	169	173
순이익	16	24	48.1	19	27.4	89.4	130	134

*상기 보고서는 2015년 5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삼성증권(016360)

매수(유지)

목표가: 71,000원(상향)

종가(5/8): 59,000원

이익 개선의 절반 정도는 구조적 성장 요인

■ What's new : 우리 이익 전망과 거의 일치한 1분기 순이익, 기존 전망의 틀 유지

1분기 순이익은 833억원으로 우리 전망(1,034억원)을 19% 하회했다. 그렇지만 내용은 예상을 상회한다. 순이익은 컨센서스(843억원)에는 부합했고, 트레이딩 부문 실적이 우리 전망보다 적을 뿐 수수료이익의 성장과 내용은 전망보다 낮기 때문이다. 기존 이익 전망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목표가격을 71,000원으로 10% 올리고, '매수'의견을 유지한다.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이 중요시되는 증권주 속성과는 거리가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증권업종의 단기 모멘텀 약화를 전망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고객자산 증대에 따른 수익모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목표가격은 FY15말 PBR 1.4배, PER 16배이다.

■ Positives : 고객자산 및 수수료 수익기반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

1) 주식중개 및 금융상품판매 등 수수료 수익 기반이 넓어졌다. 주식중개수수료 수익에서 해외주식 비중이 12%로 전분기대비 8%p 높아졌다. 1분기 주식중개수수료 수익은 21% 늘어나 142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해외주식이 69억원으로 절반 이상이다. 2) 금융상품 관련수익도 전분기대비 25% 늘었다. ELS를 중심으로 한 파생결합증권 관련수익이 1분기에는 428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7% 늘었는데, 판매호조 외에도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조기상환 확대도 기여했다. 3) 예탁자산이 150조원을 넘겼다. 전분기대비 10% 늘었는데 주로 건인한 것은 일반법인이었다. 68조원을 예탁해 전분기대비 16% 늘었다. 1억원 이상 고객자산 예탁자수는 8.8만명으로 4천명 늘었고, 이들이 예탁한 자산은 72조원으로 6% 증가했다.

■ Negatives : 1분기 늘어난 순수익의 64%는 자기매매가 차지해 높은 기여

1) 순수익 증가에서 채권 중심의 자기매매비중이 대형사 중 가장 낮을 것임에도 1분기 중 64%에 달한다. 전분기대비 순수익 증가분은 766억원인데 이 중 상품운용수익 증가분이 489억원이다. 2) 1분기 중 상품운용순이익은 552억원으로 전분기 63억원, 전년동기 345억원에 비해 각각 775%, 60% 늘었다. 3) 판관비가 우리 전망보다 23% 많았다. 1분기 실적이 매우 양호함에 따라 성과급 비용이 늘었다. 1분기에 인식된 성과급은 377억원으로 분기평균 120억원 내외에 비해 약 260억원 늘었다.

■ 결론 : 구조적 성장과 변동성 차원의 등락이 섞여 있는 국면

1분기 순이익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03%, 전분기대비 126%이다. 1분기에는 주식 및 채권시장 모두 호조를 보인 덕분인데, 돌이켜보면 작년 2기 경제팀 취임 이후 지속되는 경기부양정책이 해외의 저금리 및 주가상승과 맞물린 덕분이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구조적 성장과 변동성 차원의 등락’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1분기 실적의 윤곽은 1) 채권중심 자기매매부분의 큰 기여, 2) 늘어난 수익에 상응하는 인건비 상승이며, 변동성 차원의 등락 요인이다. 반면 1) 우리 전망보다는 늘어난 수수료 수익, 2) 꾸준히 늘어난 고객예탁자산은 구조적 성장 측면을 기대하게 한다.

(단위: 십억원, %)

	1Q15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순이익	258.8	262.5	1.4	240.2	41.2	19.6	1,032.2	905.2
판매관리비	122.7	150.5	22.6	132.8	8.6	(5.0)	589.0	554.3
판관비용율	47.4	57.3	20.9	55.3	(23.1)	(20.5)	57.1	61.2
영업이익	136.1	112.0	(17.7)	104.6	136.8	83.1	443.2	370.5
당기순이익	103.4	83.3	(19.4)	84.3	126.0	103.3	332.3	280.0

*상기 보고서는 2015년 5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매수(유지)

목표가: 60,000원(유지)

종가(5/8): 45,200원

2분기부터의 빅뱅활동 강화에 주목

■ What's new: 1분기 영업이익의 예상치를 하회

1분기 영업이익은 72억원으로 우리의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21%, 18% 하회했다. 로열티매출액이 199억원으로 기존 추정치 226억원을 12% 하회했기 때문이다. 로열티매출은 일본 내 음반/음원, 콘서트, MD판매 등에 대한 수익이다. 활동시점에서 평균 3~6개월 이후 매출로 인식(현지 파트너인 AVEX와 수익정산 관계)되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 반영된 로열티매출은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빅뱅의 돛투어에 대한 정산분이다. 예상보다 로열티매출이 적었던 이유는 1월에 열린 오사카공연의 정산분이 2분기로 이연되었고 콘서트 원가율이 우리의 추정치 대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Positives: 빅뱅을 중심으로 2분기부터 주력사업 모멘텀 강화

빅뱅의 활동재개로 음반 및 음원, 콘서트 등 주력사업의 실적개선이 2분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1) 빅뱅은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두 곡씩 신곡을 공개하고 9월에는 패키지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다. 이는 2~3분기 동안 총 5편의 앨범을 발매함을 의미한다. 지난 5월 1일에 출시된 'M' 앨범의 현재 판매량이 13만장(가온차트 기준)임을 감안하면 70만장 이상의 앨범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2) 또한, 통상적으로 앨범판매 대비 음원 수익이 더 많다는 점에서 앨범판매 금액 이상의 음원매출이 예상된다. 3) 월드투어 재개로 콘서트 매출 증가도 전망된다. 2016년 1분기까지 빅뱅은 총 70회(140만 관객 예상)의 콘서트를 계획(표2 참고)하고 있다. 빅뱅활동 강화로 2015년 음반매출은 전년 대비 160%(198억원), 음원매출은 41%(285억원), 콘서트매출은 59%(422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 Negatives: 로열티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 추정, 하지만 실적반영 시점의 차이

2015년 로열티매출액을 358억원(-26% YoY)으로 기존 추정치 대비 28% 하향 조정했다. 기존 3분기로 예상했던 일본 돛투어가 11월부터 계획(5개 도시, 14회 공연)되어 2015년 실적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적인식 시점의 차이로 일본공연은 2016년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 결론: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60,000원 유지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60,000원(2015F EPS에 목표PER 30배 적용)을 유지한다. 실적조정(음반/음원, 콘서트매출 20% 상향, 로열티매출 28% 하향)으로 2015년 순이익 추정치를 5% 하향 조정하지만 변동폭이 크지 않아 목표주가는 유지한다. 2분기부터의 주력 아티스트 활동강화(빅뱅, 위너, 아이콘 데뷔)로 2015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49%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5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3.0	44.4	3.2	46.1	9.8	1.2	203.2	193.0
영업이익	9.1	7.2	(21.0)	8.7	71.4	(13.5)	32.7	32.2
영업이익률	21.1	16.1		18.9			16.1	16.7
세전이익	9.9	8.3	(15.7)	10.8	33.0	(0.3)	36.3	36.6
순이익	7.5	5.8	(23.1)	7.5	174.7	(0.4)	27.3	27.7

*상기 보고서는 2015년 5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원익PS(030530)

매수(유지)

목표가: 16,500원(상향)

종가(5/8): 13,400원

하반기에 장비수주가 몰려있다

■ What's new: 반도체 장비입고의 일부 지연으로 당사 예상치 하회

원익PS의 1Q15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23% 감소한 1,554억원,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19% 감소한 291억원(영업이익률 18.7%)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우리 예상치(348억원, 영업이익률 19.9%)를 하회한 요인은 주요 고객사의 DRAM 관련 장비입고가 일부 2Q15로 지연되면서 반도체 관련 매출액은 당사 예상치(1,050억원)를 10% 하회한 94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반도체 61%, 디스플레이 0.4%, 태양광 0.1%, 가스솔루션 14%, 연결대상 25%.

■ Positives: 2015년 NAND 관련 매출액은 기존 예상보다 견조할 것

원익PS의 2015년 NAND 관련 매출액은 기존 예상보다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주요 고객사 Xian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가 기존 예상대비 1분기정도 앞당겨질 전망이고, 2) 3D NAND의 미세공정(적층수 32단→48단) 효과로 동사의 Metal CVD/PECVD/New PECVD 장비 수주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5년 NAND 관련 매출액은 기존대비 27% 상향한 1,463억원(기존 1,150억원)으로 전망된다.

■ Negatives: DRAM 관련 증설투자는 상당 부분이 1Q15에 마무리

주요 고객사의 DRAM 관련 증설투자는 1Q15에 상당 부분이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1) 4Q14에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한 국내 주요 고객사 DRAM 17라인의 증설투자는 1Q15에 상당부분이 마무리되면서 2Q15에는 2015년 총 투자금액의 20% 수준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2) DRAM 11/13/15라인의 미세공정(25nm→21nm) 전환에 따른 보완투자도 장비입고 기준에 따라 분기별 편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 결론: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6,500원으로 상향

원익PS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15,000원에서 16,500원으로 10% 상향한다(12MF EPS에 16배 적용). 상향 요인은 1) 하반기 NAND/System LSI/디스플레이/태양광 관련 매출액 증가로 동사의 분기별 영업이익은 2Q15를 저점으로 지속 성장함에 따라 12MF EPS(목표주가 산정 구간인 2Q15-1Q16)를 기존대비 10% 상향했고, 2) 전자산업용 특수가스 공급업체인 연결 자회사(원익머티리얼즈)의 안정적인 실적은 여전히 추가적인 메리트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5년 매출액은 6,841억원(+23% YoY), 영업이익은 1,215억원(+32% YoY, 영업이익률 17.8%)으로 전망된다.

	1Q15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75.2	155.4	(11.3)	172.7	(23.2)	9.4	684.1	667.5
영업이익	34.8	29.1	(16.3)	32.8	(19.4)	1.8	121.5	118.8
영업이익률	19.9	18.7	(1.1)	19.0	0.9	(1.4)	17.8	17.8
세전이익	26.3	29.1	10.9	33.3	114.0	28.1	117.0	117.6
순이익	23.2	19.9	(14.0)	22.3	65.8	(1.7)	77.2	77.0

*상기 보고서는 2015년 5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 CGV(079160)

매수(유지)

목표가: 100,000원(상향)

종가(5/8): 81,600원

1분기 호실적 달성, 더 기대되는 2분기

■ What's new: 별도기준 영업이익 전년 대비 15% 개선, 비용통제의 힘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2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직영점관객이 전년 대비 7% 감소했고 ATP(Average Ticket Price)가 1% 증가에 그쳤지만 이익개선이 나타났다. 비용통제와 고수익성 매출원 확대에 기인한다. 1) 국내 직영점이 전년 대비 8개 증가했지만 인건비 및 광고판촉비는 오히려 3% 감소했다. 국내 사업의 비용 통제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 스크린광고 수요 증가로 광고매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SPP(관람객 당 매점매출액)도 메뉴 다양화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지난 하반기에 이어 1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국내사업의 이익안정성이 높아졌음을 재확인했다.

■ Positives: 1분기 중국사업 실적 개선 확인, 2분기는 흑자전환 예상

1분기 중국사업의 영업적자(연결 및 JV자회사 합산실적)는 11억원으로 전년 동기 50억원, 전분기 28억원 대비 대폭 감소했다. 5개 신규사이트 증설에 따른 초기비용 부담에도 기존 사이트의 이익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중국영화시장의 고성장에 기인했다. 1분기 박스오피스 기준 중국영화시장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특히, CJ CGV의 박스오피스 성장이 60%로 시장성장률을 상회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분기 중국사업의 영업이익은 13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추정된다. ‘분노의 질주: 더 세븐(4월 개봉)’, ‘어벤저스2(5월 중순 개봉예정)’ 등 할리우드 대작의 흥행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완다시네마라인의 4월 박스오피스가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는 점에서 시장성장의 수혜가 전망된다.

■ Negatives: 다소 아쉬운 국내 자회사 실적개선 속도

4DX/시물라인 등 국내 자회사의 영업적자는 23억원으로 전년 31억원 대비 감소했지만, 전분기 5억원보다는 증가했다. 현재 31개국, 151개 스크린에 4DX시설을 공급했지만 아직 이익창출이 가능한 매출규모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2015년 연말까지 누적기준 199개의 4DX 스크린 공급이 예상되며, 연간 영업적자는 37억원으로 추정된다.

■ 결론: 목표주가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

목표주가를 기존 86,000원에서 100,000원으로 16% 상향한다. 12개월 forward EPS 3,334원에 목표 PER 30배를 적용했다. 국내 사업 이익안정성 및 해외사업 실적개선 가시성이 높아져 2015년, 2016년 EPS 추정치를 각각 1%, 7% 상향 조정했고, EPS기준도 2015년에서 12개월 forward로 변경했다. 2분기부터 중국, 베트남 등 해외사업의 성장성은 단순 기대감을 넘어 실적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2016년 기준 PER이 20배로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5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75.3	257.5	(6.4)	266.2	(0.6)	4.3	1,211.9	1,195.4
영업이익	17.0	14.5	(15.1)	14.5	169.5	50.8	89.7	76.6
영업이익률	6.2	5.6		5.4			7.4	6.4
세전이익	15.1	14.6	(3.4)	11.4	흑전	135.2	82.3	62.1
순이익	12.1	9.0	(25.8)	9.0	흑전	178.5	61.7	50.5

*상기 보고서는 2015년 5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F(093050)

매수(유지)

목표가: 44,000원(유지)

종가(5/8): 35,000원

대세는 온라인, 위기에서 기회로

■ 온라인 쇼핑몰 트라이씨클 지분 인수

8일 동사의 트라이씨클 M&A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트라이씨클은 영.유아부터 20~30대까지 대상으로 국내/ 해외 우수 브랜드의 이월 상품 판매를 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2014년 매출액 532억원에 영업이익 9억원, 순이익 5억원을 기록했다. 지분 100%를 인수, 인수 금액은 추후 분기 보고서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다만 인수 금액은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트라이씨클의 순이익 규모도 미미해 인수 이후 연결 실적으로 반영시 LF의 매출액만 3~4% 상향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중고가 제품 위주의 온라인 사업을 중저가로,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할 목적으로 판단된다.

■ 2010년 이후 온라인 강화에 주력, 매출 비중은 약 15~20% 추정

이번 인수 자체 보다도 주목할 것은 동사가 온라인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이후 소비 둔화기에 국내 패션업체들이 더욱 고전한 이유는 높은 백화점 의존도로 온라인, 모바일, SPA 등의 부상으로 요약되는 유통 채널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서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동사는 온라인 사업을 확대, 2010년 미미했던 온라인 매출 비중이 최근 약 15~20%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백화점 채널 의존도는 과거 피크 65% 수준에서 최근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백화점 채널 부진은 온라인이 상쇄하고 있으며 자체 온라인 쇼핑몰 비중이 높아 수익성 제고에도 긍정적이다.

■ 온라인 강화는 ASP는 낮추면서 재고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

온라인 사업 강화 목적은 ASP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고 비용과 유통 수수료를 경감해 원가와 판매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20~40%에 달하는 유통 수수료와 의류 속성상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는 재고 비용을 채널 전환과 제품의 빠른 회전으로 극복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동사의 온라인 사업은, 1) 국내 2위 패션업체로써 40~50개의 브랜드를 확보해 상품 구색이 다양하고 2) 남성복, 캐주얼, 잡화, 수입 여성복 등 전 복종에서 상위 브랜드를 확보해 콘텐츠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 우위가 있다

■ 정상화는 진행형, 금년은 오프라인도 강화. 소비 회복 기대와 가치주로 접근할 시점

12MF PER 10배, 금년 예상 배당수익률 1.6%로 저가 매력과 2분기부터 낮은 기저로 인한 완만한 소비 회복을 염두에 둔 매수 관점이 바람직하다. 목표주가 44,000원(12MF PER 13배)을 유지한다. 온라인 사업 강화에 더해 비효율 매장 및 브랜드 구조 조정, 자회사 효율화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금년은 스포츠, 편집숍 위주로 오프라인 매장수도 확대, 최근 3년간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 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1,486	85	68	2,332	12.3	136	14.5	6.2	1.1	7.6	1.2
2014A	1,460	96	81	2,782	19.3	138	10.7	4.9	0.9	8.6	1.7
2015F	1,567	113	96	3,267	17.4	156	10.7	5.0	1.0	9.4	1.6
2016F	1,682	128	109	3,715	13.7	172	9.4	4.3	0.9	9.8	1.7
2017F	1,784	144	122	4,162	12.0	189	8.4	3.6	0.8	10.1	1.9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5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30(목)	5/4(월)	5/6(수)	5/7(목)	5/8(금)	5/11(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127.17	2,132.23	2,104.58	2,091.00	2,085.52	2,097.38
	등락폭		-15.46	5.06	-27.65	-13.58	-5.48	11.86
	등락종목	상승(상한)	244(4)	334(6)	187(9)	364(7)	532(9)	564(10)
		하락(하한)	561(1)	488(3)	633(1)	437(3)	279(2)	233(2)
	ADR		101.69	96.14	89.52	88.64	90.39	93.04
	이격도	10 일	99.00	99.29	98.19	97.80	97.81	98.72
		20 일	100.57	100.60	99.16	98.42	98.10	98.57
	투자심리		30	30	20	20	20	20
	거래량	(백만 주)	509	356	428	423	310	327
	거래대금	(십억 원)	6,171	4,729	5,674	5,464	4,761	4,963
코스닥	코스닥지수		689.01	677.90	665.94	673.08	681.69	692.29
	등락폭		-6.68	-11.11	-11.96	7.14	8.61	10.60
	등락종목	상승(상한)	244(6)	334(8)	187(8)	364(9)	532(12)	668(14)
		하락(하한)	561(9)	488(14)	633(4)	437(7)	279(1)	317(2)
	ADR		96.46	88.41	83.15	84.25	88.50	89.47
	이격도	10 일	98.49	97.30	96.15	97.77	99.33	100.88
		20 일	100.02	98.27	96.51	97.50	98.65	100.07
	투자심리		30	30	20	20	20	20
	거래량	(백만 주)	585	441	486	474	439	424
	거래대금	(십억 원)	3,801	3,038	3,274	3,424	3,145	2,952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857.9	1,169.9	901.9	198.1	141.5	197.0	59.6	35.6	269.932
	매도	2,774.7	1,216.0	958.9	218.0	167.5	253.5	58.8	15.5	245.6
	순매수	83.2	-46.0	-57.1	-19.9	-26.0	-56.5	0.8	20.1	24.4
	5월 누계	549.6	86.1	-669.6	-55.2	-129.5	-404.1	-214.8	-38.8	172.9
	15년 누계	-1,603.6	7,851.3	-7,236.1	-2,946.7	-517.1	-5,950.3	-596.1	35.9	2,738.0
코스닥	매수	2,567.0	191.0	206.2	49.5	21.4	53.2	29.1	8.2	44.8
	매도	2,616.4	178.3	152.3	44.3	15.8	33.2	6.2	7.9	44.9
	순매수	-49.3	12.7	53.9	5.3	5.6	20.0	22.9	0.3	-0.1
	5월 누계	7.1	0.8	26.6	-1.6	-3.4	17.4	9.0	-28.1	33.2
	15년 누계	1,464.8	-520.4	-264.7	-146.4	89.8	-156.8	-124.2	-32.0	104.9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증권	5,001	전기,전자	-18,559
건설업	2,592	화학	-11,329
음식료품	2,170	서비스업	-9,236
GS	4,855	삼성전자	-10,030
삼성증권	3,195	SK C&C	-9,710
한국가스공사	3,139	아모레퍼시픽	-4,441
대림산업	3,022	아모레퍼시픽우	-4,086
삼성에스디에스	2,470	NAVER	-3,67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2,355	운수장비	-17,022
증권	10,864	유통업	-9,472
서비스업	10,650	운수창고	-3,099
LG생활건강	10,772	현대모비스	-9,981
SK텔레콤	8,164	KT	-5,619
SK하이닉스	5,191	대우조선해양	-5,090
CJ	5,076	현대차	-4,745
하나금융지주	4,701	KB금융	-3,52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4,941	보험	-399
운수장비	4,241	의료정밀	0
화학	1,988	서비스업	19
KODEX 200	13,342	코오롱인더	-1,325
TIGER 경기방어	5,280	유한양행	-849
KT	4,434	CJ CGV	-460
대우조선해양	3,964	GKL	-402
아모레퍼시픽	2,195	아이마켓코리아	-36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의약품	6,538	서비스업	-10,682
건설업	3,469	전기,전자	-8,908
증권	3,398	운수장비	-6,266
KODEX 200	9,124	삼성전자	-7,306
한미약품	6,151	SK C&C	-6,521
한국가스공사	2,958	NAVER	-6,168
CJ	2,680	제일모직	-5,494
KT&G	2,550	한국전력	-4,060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건설업	21,434	운수장비	-28,995
의약품	12,176	전기,전자	-24,944
통신업	5,473	서비스업	-16,384
KODEX 인버스	17,831	KODEX 레버리지	-28,792
삼성증권	12,935	SK C&C	-22,420
SK텔레콤	12,704	삼성전자	-17,916
한미약품	11,851	KODEX 200	-13,405
LG생활건강	9,935	호텔신라	-11,828
CJ	8,730	제일모직	-11,597
현대산업	8,229	현대모비스	-10,922
KT&G	7,696	NAVER	-9,572
대림산업	6,844	한국전력	-8,032
삼성에스디에스	6,749	대우조선해양	-7,20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1,712	통신업	-40,309
전기가스업	9,329	화학	-20,875
음식료품	6,108	건설업	-14,117
SK C&C	22,281	아모레퍼시픽	-41,336
삼성전자	14,759	SK텔레콤	-32,022
SK하이닉스	13,549	LG디스플레이	-12,188
롯데케미칼	9,084	롯데쇼핑	-10,451
호텔신라	7,634	KT&G	-9,232
한국전력	7,603	LG생활건강	-7,293
LG화학	6,576	코오롱인더	-6,443
대한유화	6,502	현대건설	-6,349
현대모비스	6,328	KT	-6,169
CJ제일제당	6,319	하나금융지주	-5,43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3,349	교육	-1,217
전문기술	2,904	기계,장비	-957
제약	2,331	출판,매체 복제	-739
파라다이스	3,454	제우스	-1,544
CJ E&M	2,959	메가스터디	-1,276
다우데이터	1,403	서울반도체	-782
컴투스	1,368	차바이오텍	-679
한국정보통신	1,328	원익QnC	-563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종이,목재	863	의료,정밀기기	-4,449
제약	737	전문건설	-329
정보기기	669	통신서비스	-259
삼성엘엔에스	863	오스템임플란트	-4,032
메디톡스	772	휴비츠	-512
토비스	669	한양이엔지	-329
CJ오쇼핑	436	SK브로드밴드	-257
코스온	329	바이넥스	-214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의료,정밀기기	1,692	디지털컨텐츠	-5,696
반도체	1,670	운송장비,부품	-231
오락,문화	1,150	음식료,담배	-192
유니테스트	1,250	컴투스	-5,444
파라다이스	824	네오팜	-596
솔브레인	722	동서	-577
유진기업	617	이오테크닉스	-523
코스온	616	바이오랜드	-497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18,316	디지털컨텐츠	-12,442
오락,문화	9,031	도매	-3,234
종이,목재	3,281	제약	-3,164
CJ E&M	17,682	컴투스	-10,650
파라다이스	8,415	셀트리온	-9,344
메디톡스	3,763	다우데이터	-4,534
삼성엘엔에스	3,417	이오테크닉스	-3,449
한국정보통신	2,506	오스템임플란트	-2,344
테스	2,195	코나아이	-1,423
동국제약	1,989	SK브로드밴드	-1,269
바이오메드	1,989	메가스터디	-1,197
솔브레인	1,944	제우스	-1,157
보령메디앙스	1,844	심텍	-1,128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종이,목재	5,793	연구,개발	-1,554
인터넷	3,597	반도체	-1,485
오락,문화	3,429	비금속	-1,092
미디어플렉스	6,390	파라다이스	-3,813
삼성엘엔에스	5,785	에스엠	-2,036
다음카카오	3,417	원익IPS	-2,031
에이블씨엔씨	3,139	엑토즈소프트	-1,667
로엔	2,146	컴투스	-1,606
조이시티	2,029	솔브레인	-1,592
셀트리온	1,955	바이오메드	-1,117
코미팜	1,859	삼천리자전거	-1,116
주성엔지니어링	1,516	JW중외신약	-1,075
서희건설	1,336	한국사이버결제	-1,01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일진디스플레이	12 일	삼성정밀화학	45 일	주성엔지니어링	9 일	인터파크홀딩스	6 일
삼성생명	12 일	디와이	28 일	비에이치아이	9 일	시그네텍스	5 일
TIGER 인버스	9 일	현대제철	27 일	GS홈쇼핑	6 일	이오테크닉스	5 일
KINDEX 인버스	9 일	SK하이닉스	20 일	성광벤드	5 일	매일유업	4 일
현대산업	7 일	SK C&C	13 일	파라다이스	4 일	KCC건설	4 일
KODEX 인버스	7 일	한화	12 일	CJ오쇼핑	4 일	SK브로드밴드	4 일
KODEX 소비재	7 일	고려아연	11 일	OCI머티리얼즈	4 일	동양시멘트	4 일
기아차	6 일	국도화학	10 일	동국산업	3 일	다산네트웍스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인버스	146,431	SK하이닉스	91,636	파라다이스	25,780	삼성엘엔에스	34,511
POSCO	52,965	기아차	66,483	원익IPS	22,866	이오테크닉스	6,582
삼성생명	46,368	KODEX 200	60,776	CJ E&M	14,882	서울옥션	5,993
CJ	23,676	LG화학	57,981	나노신소재	6,368	블루콤	4,963
기아차	21,198	SK C&C	54,113	디오	5,016	한글과컴퓨터	4,657
현대산업	20,593	효성	47,615	셀바이오텍	4,893	에이치엘비	3,692
한미약품	16,401	호텔신라	40,580	OCI머티리얼즈	4,530	인바디	3,541
한국가스공사	13,722	현대차	32,661	나이스정보통신	3,486	웹젠	3,482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음식료품	4,582	6,108	10,690	전문기술	18,316	551	18,867
비금속광물	4,330	2,791	7,121	오락,문화	9,031	3,429	12,459
증권	3,066	1,512	4,577	종이,목재	3,281	5,793	9,074
SK하이닉스	5,504	13,549	19,053	삼성엘엔에스	3,417	5,785	9,201
한미약품	11,851	2,669	14,520	미디어플렉스	763	6,390	7,153
삼성증권	12,935	1,365	14,300	메디톡스	3,763	685	4,448
롯데케미칼	3,096	9,084	12,180	테스	2,195	262	2,457
LG화학	1,258	6,576	7,834	보령메디앙스	1,844	254	2,099
한국가스공사	3,263	1,158	4,421	주성엔지니어링	510	1,516	2,025
한샘	2,738	1,538	4,275	유니테스트	1,505	493	1,998
한화	974	3,116	4,090	서희건설	586	1,336	1,922
SK이노베이션	661	3,201	3,862	휴온스	1,392	493	1,884
삼립식품	2,913	637	3,550	인터파크홀딩스	940	688	1,62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세종공업	17 일	종근당홀딩스	17 일
삼성SDI	16 일	현대상선	14 일
제일기획	15 일	코오롱	11 일
대우조선해양	15 일	한전기술	11 일
쿠쿠전자	14 일	넥센타이어	9 일
삼성카드	10 일	한솔홀딩스	9 일
현대글로비스	10 일	신세계	9 일
KODEX 삼성그룹	10 일	GS건설	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이테크솔루션	100 일	성우하이텍	17 일
한진피앤씨	17 일	메디포스트	9 일
SBS콘텐츠허브	5 일	포스코엠텍	7 일
메가스터디	5 일	OCI머티리얼즈	7 일
에스엠	4 일	한국정밀기계	7 일
셀트리온	4 일	SK컴즈	5 일
툭텍	4 일	아트라스BX	4 일
KCC건설	3 일	성광벤드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51,818	아모레퍼시픽	-111,847
KODEX 200	-104,912	삼성전자	-104,874
삼성전자	-75,172	LG전자	-40,878
제일모직	-72,934	제일모직	-36,202
아모레퍼시픽	-60,317	NAVER	-21,582
SK텔레콤	-55,901	SK네트웍스	-18,878
SK C&C	-48,596	삼성생명	-17,573
SK하이닉스	-44,563	삼성화재	-17,018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18,340	원익IPS	-10,917
다음카카오	-11,140	파라다이스	-8,178
이오테크닉스	-9,759	엑토즈소프트	-4,322
에스에프에이	-5,936	대한뉴팜	-3,692
게임빌	-5,193	코스온	-3,687
조이시티	-5,178	OCI머티리얼즈	-3,564
SBS콘텐츠허브	-4,945	셀트리온	-3,203
서울옥션	-3,704	솔브레인	-3,190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28,995	-495	-29,490
유통업	-11,282	-6,802	-18,084
철강및금속	-5,174	-1,886	-7,060
아모레퍼시픽	-2,717	-41,336	-44,053
KODEX 레버리지	-28,792	-560	-29,352
롯데쇼핑	-3,734	-10,451	-14,185
NAVER	-9,572	-25	-9,597
코오롱인더	-2,056	-6,443	-8,499
LG유플러스	-6,349	-2,119	-8,468
삼성SDI	-2,877	-4,771	-7,648
POSCO	-3,265	-4,270	-7,535
현대위아	-4,986	-2,368	-7,353
KT	-881	-6,169	-7,050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12,442	-605	-13,047
기계,장비	-2,072	-386	-2,457
컴퓨터서비스	-474	-1,075	-1,549
컴투스	-10,650	-1,606	-12,256
에스엠	-398	-2,036	-2,434
네오팜	-910	-903	-1,813
엑토즈소프트	-30	-1,667	-1,696
심텍	-1,128	-470	-1,598
삼천리자전거	-439	-1,116	-1,555
게임빌	-913	-330	-1,243
JW중외신약	-42	-1,075	-1,117
에스에프에이	-1,025	-30	-1,055
씨젠	-432	-486	-91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아모레퍼시픽	24	9,032	
제일모직	58	8,405	
대우조선해양	428	7,509	
삼성중공업	364	6,653	
한화케미칼	405	6,418	
KODEX 200	230	6,006	
코오롱인더	78	5,536	
LG전자	90	5,29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파라다이스	388	10,149	
다음카카오	38	4,038	
원익IPS	185	2,464	
아가방컴퍼니	134	1,849	
컴투스	9	1,570	
셀트리온	18	1,500	
CJ E&M	24	1,420	
GS홈쇼핑	4	1,041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500	6,020,633	
현대중공업	7,580	1,045,983	
현대차	5,446	942,234	
삼성중공업	51,562	938,420	
SK하이닉스	19,443	893,424	
삼성에스디에스	3,185	804,123	
POSCO	2,843	742,095	
대우조선해양	41,251	719,83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0,592	1,719,401	
다음카카오	6,483	675,537	
CJ E&M	706	551,342	
파라다이스	13,848	364,215	
컴투스	1,703	299,802	
위메이드	1,719	246,144	
서울반도체	7,415	139,775	
에스엠	4,164	129,083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증권	7,218	전기,전자	-2,498
금융업	4,011	운수창고	-1,907
화학	2,931	보험	-1,682
SK증권	5,069	한화생명	-1,822
대우건설	1,907	삼성중공업	-1,605
대우조선해양	1,735	한진해운	-1,436
KB금융	1,477	팬오션	-1,424
현대상선	1,406	SK하이닉스	-980
아모레퍼시픽	1,325	엔케이	-968
동양	1,122	현대중공업	-926
LG유플러스	1,097	KT	-857
BNK금융지주	1,032	쌍용차	-827
현대증권	1,007	LG디스플레이	-60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섬유,의류	1,099	소프트웨어	-1,150
반도체	1,048	오락,문화	-332
화학	938	통신서비스	-68
지엔코	1,028	대아티아이	-495
티케이케미칼	509	코나아이	-457
해덕파워웨이	400	아가방컴퍼니	-438
에스에프에이	368	유비케어	-352
STS반도체	258	우리산업홀딩스	-302
이화전기	234	셀트리온	-292
포스코켄텍	203	파트론	-286
CJ E&M	195	파라다이스	-268
유진기업	195	성광벤드	-217
평화정공	189	KH바텍	-200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5/4(월)	5/6(수)	5/7(목)	5/8(금)	5/11(월)
외국인	7,851.3	86.1	86.1	136.5	93.7	-67.2	-23.9	-46.0
기관계	-7,236.1	-669.6	-669.6	-121.2	-218.5	-108.4	-171.5	-57.1
(투신)	-5,950.3	-404.1	-404.1	-76.8	-85.2	-60.6	-125.1	-56.5
(연기금)	3,328.5	161.3	161.3	30.9	-1.5	66.6	40.7	24.5
(은행)	35.9	-38.8	-38.8	-21.5	-13.7	-18.1	-5.7	20.1
(보험)	-517.1	-129.5	-129.5	-16.1	-30.1	-36.4	-21.0	-26.0
개인	-1,603.6	549.6	549.6	-10.4	110.6	168.5	197.8	83.2
기타	988.4	34.0	34.0	-4.9	14.2	7.1	-2.4	20.0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4/30(목)	5/4(월)	5/6(수)	5/7(목)	5/8(금)
KOSPI	1,997.1	2,011.3	1,915.6	2,127.2	2,132.2	2,104.6	2,091.0	2,085.5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21,215.4	21,844.1	21,690.0	21,307.7	20,609.7
(증감액)	334.1	-3,802.5	1,630.7	-502.0	628.7	-154.1	-382.3	-698.0
(회전율)	26.7	29.9	34.0	47.0	35.6	41.3	41.7	38.4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458.2	887.8	40.9	-272.9	-481.6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503.9	3,521.9	3,486.5	3,515.3	3,441.4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940.9	3,927.8	3,928.5	3,895.0	3,824.1
미수금	1,241.0	929.0	1,176.0	174.5	173.8	171.1	165.3	185.4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4(월)	5/6(수)	5/7(목)	5/8(금)
전체 주식형	76,660	-4,130	-216	113	-28	-103	-198
(ex. ETF)		-4,244	-524	-166	-59	-94	-205
국내 주식형	59,790	-4,653	-152	104	-22	-106	-129
(ex. ETF)		-4,773	-467	-175	-53	-96	-143
해외 주식형	16,870	522	-64	9	-6	3	-69
(ex. ETF)		529	-57	9	-6	3	-62
주식 혼합형	9,379	-1,174	-41	-14	-7	-23	3
채권 혼합형	27,062	-555	223	84	97	4	38
채권형	80,498	7,341	-283	-35	-189	15	-75
MMF	114,899	32,012	2,303	-2,356	2,735	2,324	-40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5/6(수)	5/7(목)	5/8(금)	5/11(월)
한 국	7,149	81	-533	87	-61	-22	-42
대 만	7,345	303	-494	56	-46	83	-
인 도	6,660	-552	-708	-279	-202	-	-
인도네시아	821	-65	-157	-64	-27	-8	-
태 국	-267	-17	-93	-2	-1	-14	-
남아공	1,340	-99	-76	-48	-68	9	-
필리핀	852	-13	-10	-19	22	-22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4/30(목)	5/4(월)	5/6(수)	5/7(목)	5/8(금)	5/11(월)
회사채 (AA-)	2.43	2.08	2.13	2.19	2.19	2.11	2.10
회사채 (BBB-)	8.26	7.99	8.04	8.10	8.10	8.02	8.01
국고채 (3년)	2.10	1.84	1.90	1.97	1.97	1.89	1.88
국고채 (5년)	2.28	2.04	2.10	2.20	2.21	2.08	2.11
국고채 (10년)	2.60	2.41	2.49	2.57	2.55	2.42	2.46
미 국채 (10년)	2.20	2.11	2.19	2.24	2.18	2.15	-
일 국채 (10년)	0.33	0.36	0.36	0.36	0.43	0.42	-
원/달러	1,099.30	1,072.40	1,079.20	1,080.00	1,089.70	1,088.30	1,091.30
원/엔	920.30	892.03	900.23	904.14	910.20	908.20	910.86
엔/달러	119.45	120.22	119.88	119.45	119.72	119.83	119.81
달러/유로	1.22	1.12	1.12	1.13	1.12	1.12	1.12
DDR3 1Gb (1333MHz)	1.34	1.22	1.22	1.22	1.22	1.21	-
DDR3 2Gb (1333MHz)	2.21	1.88	1.85	1.84	1.83	1.82	-
NAND Flash 16Gb (MLC)	2.18	1.86	1.85	1.85	1.85	1.85	-
CRB 지수	233.24	228.53	231.43	230.85	227.41	229.74	-
LME 지수	2,907.6	2,944.1	3,002.9	2,947.4	2,937.4	2,932.5	-
BDI	782	587	580	575	573	574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59.15	60.40	60.93	58.94	59.39	-
금 (달러/온스)	1,185.50	1,175.95	1,197.00	1,194.25	1,187.00	1,186.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4	5	6	7	8
中> 4월 HSBC 제조업 PMI (48.9, 49.4, 49.2) 美> 3월 제조업수주 (2.1%, 2.0%, 0.2%) 유럽> 4월 마켓 제조업 PMI (52.0, 51.9, 51.9)	美> Evans 연준이사 연설 3월 무역수지(십억 달러) (-51.4, -41.7, -35.4)	美> Yellen 연준의장 연설 4월 ADP 취업자 변동(천명) (169, 200, 189) 유럽> 3월 소매판매 MoM (-0.8%, -0.7%, -0.2%)	美> George 연준이사 연설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日> 4월 본원통화 YoY (35.2%, n/a, 35.2%)	中> 4월 수출 YoY (-6.4%, 1.6%, -15.0%) 4월 수입 YoY (-16.2%, -12.2%, -12.7%) 美> 4월 실업률 (5.4%, 5.4%, 5.5%) 4월 비농업부통고용자수 변동(천명) (213, 225, 126) 독일> 3월 산업생산 MoM (-0.5%, 0.4%, 0.2%)
11	12	13	14	15
中>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9일) (1.5%, 1.6%, 1.4%) 실적발표> 韓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中> 4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n/a, 12.0%, 11.6%) 4월 신규대출 (~15일, 십억위안) (n/a, 900, 1,180) 실적발표> 韓 삼성생명, 게임빌	韓> 4월 실업률 (n/a, 3.7%, 3.7%) 中> 4월 광공업생산 YoY (n/a, 6.0%, 5.6%) 美> Williams 연준이사 연설 4월 소매판매 MoM (n/a, 0.2%, 0.9%) 유럽> 1분기 GDP QoQ (n/a, 0.4%, 0.3%) 독일> 1분기 GDP QoQ (n/a, 0.5%, 0.7%) 실적발표> 韓 한화생명, 엔씨소프트 美 메이시스, 폴로	실적발표> 韓 한화케미칼, 대한항공, 다음카카오, 강원랜드, 아모레퍼시픽 美 시스코, 시만텍	韓> 금통위 금리 결정 (n/a, 1.75%, 1.75%) 美> 4월 광공업생산 MoM (n/a, 0.0%, -0.6%) 5월 예비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n/a, 96.5, 95.9)
18	19	20	21	22
日> 3월 기계수주 MoM 3월 광공업생산 MoM	美> 4월 주택착공건수 유럽>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독일> ZEW 서베이 예상	日> 1분기 GDP QoQ	美> 4월 FOMC 의사록 공개 4월 기존주택매매 中> 5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유럽> 5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독일> 5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美> 4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독일> 1분기 GDP QoQ 확정치 IFO 기업환경지수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